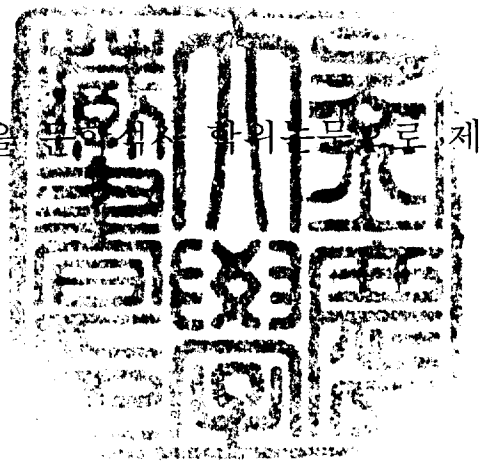
문학석사 학위논문

토니 모리슨의 반서사와 반역사적 글쓰기

- 『가장 푸른 눈』과 『빌러브드』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엄 광 웅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 장 권

김장권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1년 12월 26일

주 심 문학박사 김 보 희

위 원 문학박사 박 양 근

위 원 문학박사 엄 광 웅

<목 차>

서 론 1

제1장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 6
1. 해체를 통한 흑인 정체성의 탐색 6
2. 반서사적 글쓰기 22

제2장 『빌러브드(*Beloved*)』 36
1. 『빌러브드』에 나타난 모리슨의 역사의식 36
2. 반역사적 글쓰기 51

결 론 65

참 고 문 헌 69

Toni Morrison's Counter-Narrative and Counter-History in *The Bluest Eye* and *Beloved*

Kim, Jang Gwo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counter-narrative and counter-history articulated in Toni Morrison's two works, *The Bluest Eye* and *Beloved.* As an Afro-American writer, Toni Morrison has searched for a way to replace white man's dominant discourses and recover Afro-American's self-identity. Although Swedish Academy praised her novel's aesthetic value when Morrison won the Nobel prize, what makes her work great is the consummate consolidation of the aesthetic and the political in her novel. In this thesis I explored the elements in her novel which counter white man's dominant ideology in terms of 'counter-narrative' and 'counter-history'.

In *The Bluest Eye* I investigated Afro-American's self-identity and counter-narrative through the deconstruction of Dick and Jane primer, multivocality in the work, call-and-response pattern, mirror image,

class division between black men and mulatto, and characters' gaze-related problems. Many painful experiences of slavery made Afro-Americans lose their self-identity. Morrison's literary project involves confronting dominant discourses which are the cause of the chasm of race, class and gender. Morrison resists them with her narrative.

In *Beloved* I observed Morrison's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counter-history. By rereading the past and rewriting black American's unpresented and unspoken past, Morrison's work formulates counter-history against racism-stricken white American history. Black traditional folklore, hidden stories, and even the painful past of slavery are recovered through her narrative style of rememory. Subsequently, they become an historical present that can be reminded of by all Afro-Americans.

On account that counter-narrative and counter-history confront with white-centered colonial discourse, they are closely related with counter-discourse. As a matter of fact, Morrison's creative activity is a course of forming counter-discourse against the white-centered colonial discourse.

In conclusion counter-narrative and counter-history help understand the subjects Morrison's two novels are suggesting, recovering self-identity and restoring Afro-American history distorted by white men.

서 론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은 프레드릭 더글라스(Fredrick Douglas), 부커 T. 워싱턴(Booker T. Washington), W. E. B 두보이스(W. E. B. Dubois), 진 투머(Jean Toomer), 랠프 엘리슨(Ralph Ellison)등의 대표적 흑인문학작가들의 문학적 업적을 계승함과 동시에 흑인여성의 입장에서 흑인 정체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왔다. 1973년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을 시작으로 『솔로몬의 노래(*Song of Solomon*, 1977)』, 『타르 베이비(*Tar Baby*, 1981)』, 『빌러브드(*Beloved*, 1987)』, 『재즈(*Jazz*, 1992)』, 그리고 가장 최근 작품인 『낙원(*Paradise*)』에 이르기까지 흑인여성의 시각을 통해 왜곡된 흑인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맥키(Patricia Mckee)는 미국의 문학, 언론, 시각매체, 제도를 인종적 입장에서 면밀히 분석한 『미국의 인종생산(*Producing American Races*)』에서 "미국 백인의 정체성은 흑인이라는 타자를 더욱 부각시키고 흑인들의 타자성을 더욱 심화함으로써 형성되어왔다" (11)고 주장한다. 1630년 메사추세츠 지방에 청교도들이 정주하면서 시작된 미국의 역사는 독특한 체제적 아이러니를 내재하고 있다. 식민지 건설의 이면에는 인디안들의 희생이 있었고, 만민의 자유와 평등을 내걸었던 독립전쟁과 흑인노예 해방이라는 인도적 기치아래 시작된 남북전쟁 이후에도 흑인의 타자성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였다. 맥키는 아프리카니즘이란 용어로 미국의 식민주의적 특징을 분석하면서, 백인계 미국인들이 "아프리카니즘을 하나의 배경 내지는 놀이터로 삼아 스스로 기피하는 부분들을 야성과 야만의 검은 암흑(a black darkness of rawness and savagery)에 전가함으로써 그 자신의 갈등을 완화한다" (12)고 말한다. 이는 미국인들이 인종차별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

을 구축해 왔음을 암시한다. 미국은 노예제도가 시작된 이후로 수없이 많은 흑인들을 신대륙 건설의 미명아래 희생시켰고, 흑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초기 대농장을 건설하였으며, 다른 인종을 희생하여 거대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미국의 자본주의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많은 흑인 작가들은 이런 미국사회의 본질을 깊이 해부해 왔으며, 몇몇 작품들은 단순한 문학작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흑인해방운동의 인식과 각성을 위한 텍스트가 되어왔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세기 흑인문학과 비평이 이중의식(double-vision)[1]과 그에 수반하는 정체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139)고 말한 두보이스(W. E. B. Dubois)의 말처럼, 흑인문학에서 흑인 정체성문제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어 왔다. 물론, 미국 흑인이 미국인일수도 없고, 아프리카인일 수도 없는 이중적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미국흑인의 정체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논점이다. 그러나, 흑인문학비평에서 간과하여서는 안될 점은 흑인문학이 흑인 정체성 문제와 더불어 미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날카롭고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마터스(Jill Matus)는 『가장 푸른 눈』의 분석에서, "이 작품이 60년대의 흑인 해방운동(the Movement)의 슬로건인 '검은 것은 아름답다(The Black is Beautiful)' 라는 슬로건을 텍스트로 구현한 것" (37)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검은 것이 아름답다' 라는 슬로건이 모리슨의 작품의도와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터스의 견해는 인종적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검은 것은 아름답다' 라는 인종담론을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결국 이 소설의 모든 문제의식이 흑/백이라는 인종적 이분법만을 강조하게 하는

1) 두보이스(W. E. B Dubois)는 흑인이 처한 이중적 상황을 "미국인일 수도 없으며, 아프리카인 일수도 없는 이중적 처지, 주변인(the marginalized)으로서의 존재의식(5)"이라고 설명한다.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는 결국 흑인의 특수한 경험을 보편적 인류애의 문제로 승화한 모리슨의 업적과 상반되는 결과를 낳는다.

모리(Aoi Mori)는 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을 분석하면서, "이 작품은 흑인 여성에게 강요된 백인들의 미의식이 흑인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보여주며 이 작품 속의 각각의 에피소드는 현상을 비추는 '거울(mirror)' 로 흑인 정체성 문제를 포함하여,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분열과 백인의 가치에 의해 조정되는 다양한 흑인의 양태를 보여준다" (58)라고 말하며,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내용상의 다양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뮬렌(Bill V. Mullen)은 "작품을 인종적 정체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만 분석할 경우, 자칫 흑인의 인종적 특수성에 기인한 연구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래서 흑인민족주의에만 입각한 연구는 결국 흑인의 인종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146)고 주장하여, 흑인 정체성의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모리슨의 소설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티핀(Helen Tiffin)이 제안한 해석방법은 유용한 방법론이다. 첫 번째 텍스트 해석방법은 "정전의 작품을 재독(rereading)하고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식민주의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분석한 후, 그 작품의 가치를 재해석하는 작업" (95)이며, 두 번째로 "재해석된 정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다시 쓰기(rewriting)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식민주의 작품과는 완전히 다른 타자들만의 독특한 글쓰기를 수행" (95)하는 일이다. 푸코(Michel Foucault)가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나, 법(law), 감옥(prison)등을 연구하면서 이런 사회적 언어들은 "일종의 체제(system)의 산물" (*Power/Knowledge* 161)이라고 주장하였듯, 식민지 담론 또한 일정한 정치경제체제의 산물이다. 식민지 담론은 식민지 지배라는 정치적 근거 위에 형성되어 왔다. 탈식민주의자들은 이런 식민

지 지배담론이 문학작품 속에 투영되며, 그것이 분류되고 정리된 것이 바로 정전(canon)이라고 말한다. 그런 탈식민주의자들에게 정전을 재독하는 것은 식민지배담론을 해체하기 위한 최우선적 단계이며,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탈식민주의자들은 정전의 작품들을 재해석한다.

이런 재독과 재해석의 과정은 모리슨의 작품을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모리슨의 소설은 백인의 왜곡된 미의식이나 백인에 의해 삭제, 왜곡, 축소된 흑인의 역사를 복원하고 있다. 이는 티핀이 말하는 재독과 다시 쓰기의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터디먼(Richard Terdiman)의 말처럼 "정전, 특권화된 관행(privileges usage), 혼합주의(syncreticity)에 반작용(counter)" (37)하는 것이다. 서사 역시 담론의 일부라고 볼 때, 모리슨의 왜곡된 미의식과 역사에 대한 다시 쓰기는 분명 하나의 지배담론에 대해 대항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모리슨의 소설은 크게 두 가지로 대항담론적 성격을 보여준다. 첫 번째가 백인의 지배적 미학에 반하는 반서사(counter-narrative)이며, 두 번째로 백인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흑인의 역사를 발굴하고 되살리는 재기억: 재개정(rememory: revision)의 방법과 스피박이 「하위주체 연구: 역사 기술학의 해체」에서 논한 반역사(counter-history)라는 개념이다.

『가장 푸른 눈』과 『빌러브드』는 백인의 지배적 미의식과 삭제되고 왜곡된 역사를 넘어 흑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다룬 작품이다. 피치(Linden Peach)는 『가장 푸른 눈』과 『빌러브드』를 분석하면서, "이 두 소설은 지배담론에 종속된 흑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 (96)를 보여줌과 동시에 "과거의 기억과 백인의 식민지배담론이 흑인들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을 탐색한 작품" (96-97)이라고 논하면서, 두 소설의 백인 지배담론에 대한 반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모리슨의 소설이

가진 지배담론에 대한 반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제 1장 『가장 푸른 눈』에서는 흑인 정체성 탐색과 더불어 모리슨의 반서사적 글쓰기를 설명하고, 제 2장 『빌러브드』에서는 왜곡된 역사에 대한 다시 쓰기로서 모리슨의 역사의식과 반역사적 글쓰기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제1장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

1. 해체를 통한 흑인 정체성 탐색

『가장 푸른 눈』은 모리슨의 처녀작으로, 지배적 미의식에 의해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을 충실히 다룬 작품이다.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페콜라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페콜라는 비극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페콜라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인은 인종차별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 속에 나타나는 인종 문제는 소설 속의 등장인물과 작품의 유기적 연결을 보장해 주는 하나의 기준일 뿐 이 소설의 주제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 『가장 푸른 눈』의 주제를 분석하는데 있어, 하인즈(Denise Heinze)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푸른 눈은 서구적인 아름다움, 절시증과 대상화, 전유와 변경, 침묵과 광기에 대한 하나의 제유이다. 이 소설의 시점은 페콜라의 관점이나 클로디아의 관점도 아니고, 폴린의 관점이나 촐리의 관점도 아니며, 다른 모든 관점들을 결집하거나, 제거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가장 푸른 눈이다.

> The bluest eye that becomes a synecdoche for western beauty, for schopophilia and objectification, appropriation and commodification, acquiescence and insanity. The point of view in the novel is not Pecola's or Claudia's or Pauline's or Cholly's but the bluest eye, which

orchestrates, obliterates, or ultimately determines all other points of view. (25)

푸른 눈(blue eye)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이 푸른 눈의 이미지와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의해 지배된다고 볼 수 있다. 푸른 눈은 우선 하인즈의 주장처럼 '서구적 미에 대한 제유(synecdoche for western beauty)' 이다. 이 작품은 지배적 성격을 가진 문화와 그 문화의 수용자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사상적 변화를 내밀하게 고찰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 즉 흑인들을 지배하는 것은 백인의 폭력이나 성적모욕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흑인들의 머릿속에 고착되어온 하나의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이다.

소설 속에서 이 지배문화에 대한 흑인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바(Homi K. Bhabha)가 주장한 바 있는 '흉내내기(mimicry)' [2]이다. 페콜라(Pecola)의 푸른 눈에 대한 집착은 의태현상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모리슨 역시 백인들의 육체의 미를 중시하는 미적 기준에 대하여 "육체적 미를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관념은 서구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둔하고 해롭고 파괴적인 생각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겠다" (Stern 77)라고 말한다. 등장인물들의 행동의 양상은 철저히 파괴적이고 우둔하며, 해로운 백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른다. 페콜라의 푸른 눈에 대한 갈망은 파괴적인 백인의 사고방식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자기파괴의 과정이다.

이 소설은 또한, 철저히 시선(vision/gaze)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한다. 페

2) 바바는 그의 논고 「의태와 인간」에서 식민지배가 거듭되면, 피지배계층의 문화는 자연스레 지배계층의 양태를 닮아가는 경향이 있고, 이 경향은 식민지배가 끝이 난 다음에도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32)

콜라에게 푸른 눈은 또 다른 시선에 대한 갈망이다. 푸른 눈은 백인의 눈이며, 페콜라는 백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한다. 그 눈은 너무도 아름답고 거부하기 힘든 것이기에 그녀의 푸른 눈에 대한 갈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짙어만 간다.

예쁜 눈, 예쁜 푸른 눈, 크고 푸른 예쁜 눈
달려간다 짚, 달려간다, 짚이 달려간다. 엘리스가 달려간다.
그들은 푸른 눈을 뜬 채 달려간다. 네 개의 푸른 눈이,
네 개의 예쁜 푸른 눈이, 푸른 하늘같은 눈이, 포레스트 부인의,
푸른 블라우스 같이 푸른 눈이, 나팔 꽃 같이 푸른 눈이.
앨리스-와-제리-푸른-이야기 책 눈이.

Pretty eyes. Pretty blue eyes. Big Blue pretty eyes.
Run, Jip, run, Jip, runs. Alice runs. They run with
Their blue eyes.. Four blue eyes. Four pretty blue
Eyes. Blue-sky eyes. Blue-like Mrs. Forrest's blue
Brouse eyes. Morning-glory-blue eyes.
Alice-and-Jerry-blue-storybook eyes. (*The Bluest Eye*[3] 46)

푸른 눈은 페콜라에게 있어 "그녀를 구해줄 기적" (46)이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47)이며, 그래서 자신이 가진 흑인적인 아름다움을 버리고 "다른 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47)이다. 사실 푸른 눈에 대한 페콜라의 갈망은 어쩌면 그녀의 부모—촐리(Cholly)와

3) 앞으로의 『가장 푸른 눈』에 대한 원문인용은 *The Bluest Eye*의 대문자를 따서 *BE* 로 표시하고 쪽수를 함께 기입하도록 한다.

폴린(Pauline)—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두 가족, 즉 페콜라의 가족과 클로디아(Claudia)의 가족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이다. 클로디아의 부모는 가난하고 불행한 삶 속에서도 자식들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페콜라의 부모, 촐리와 폴린은 흑인의 현실에 굴복한다. 특히, 페콜라의 어머니 폴린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남성적 가부장제도에 복종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폴린은 촐리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자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며, 이로부터 시선에 의한 환상은 시작된다. 폴린의 촐리에 대한 의존은 흑인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불행을 숨기기 위한 방편이 되었고, 그래서 촐리가 보내는 시선은 폴린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폴린이 촐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현실도피에 불과하다. 촐리가 폴린에게 주는 시선은 성적욕망의 표현이지만, 폴린은 이를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여기게 되고, 억압받는 흑인여성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원으로 여긴다. 이런 자기도피적 시선으로 인해 폴린의 불행은 시작되고, 자신을 속였던 위선적 시선은 결국 그들의 딸에게 이어진다. 폴린과 촐리는 이미 자신을 잃은 자들이었으며, 그들에게 삶에 대한 자부심은 오래 전에 사라진다. 특히 가부장의 권위를 잃어버린 촐리는 도덕적 기준마저 잃어버린 채 자신의 딸을 범하고 만다. 이런 페콜라에게 백인의 푸른 눈을 가진다는 것은 흑인으로 태어난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 길이다.

모리슨은 푸른 눈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진정한 미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제시한다. 이 작품의 후기(Afterword)에서 모리슨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 아름다움이란 내가 이야기했던 그 얼굴 이상의 무언가 임에 틀

림없습니다. 이른 오후 거리의 조용함, 빛, 고해성사의 분위기. . . 아뭏든 그때 처음으로 나는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스스로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보아도, 아름다움이란 단순히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It(beauty) must have been more than the face I was examining: the silence of the street in the early afternoon, the light, the atmosphere of confession. . .In any case it was the first time I knew beautiful. Had imagined it for myself, Beauty was not simply something to behold; it was something one could do. (*BE* 209)

모리슨에게 아름다움(beauty)이란 단순히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실천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작가는 진실한 아름다움이란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이 선과 사랑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아름다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모리슨에게 아름다움이란 흰 피부나 푸른 눈 같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아름다움들을 지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모리슨의 미의식은 흑과 백의 이분법적 사고 속에 생성된 왜곡된 미의식에 대한 비판이다.

이 소설의 첫 장에 나오는 딕과 제인 이야기에 대한 해체는 백인의 미의식과 지배문화에 대한 모리슨의 저항성과 해체적 사고를 동시에 보여준다. 모리슨의 작품은 미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적 본성 즉, 타자에게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이 식민주의 이데올로기가 흑인들의 심리

와 내면에 고착되어 미국적인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한 것에 대한 하나의 반서사로서 작용한다.

집이 있군요. 초록색과 하얀색이 함께 칠해져 있는 집이죠. 빨간색의 문을 갖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한 가족이 살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딕, 그리고 제인이 초록색과 하얀색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인을 볼까요? 그녀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그녀는 놀고 싶어하지요. 누가 제인과 놀아줄까요. 고양이를 볼까요. . .

Here is the house. It is green and white. It has a red door. It is very pretty. Here is the family. Mother, Father Dick, and Jane love in the green-and-white house. They are very happy. See Jane. She has a red dress. She wants to play. Who will play with Jane? See the cat. . . . . .

Here is the house It is green and white It has a red door It is very pretty Here is the family Mother Father Dick and Jane love in the green-and-white house They are very happy See Jane She has a red dress She wants to play Who will play with Jane See the cat. . . . . .

Hereisthehouseitisgreenandwhiteithasareddooritisverypretty hereisthefamilymotherfatherdickandjaneloveinthegreenandwhite housetheyareveryhappyseejaneshehasareddressshewantstoplay whowillplaywithjaneseethecat. . . . . (*BE* 3-4)

위의 문단은 미국의 초등학교 독본에 있는 딕과 제인이야기' 로 모리슨의 해체적 글쓰기의 한 예로 자주 인용된다. 모리슨은 백인의 안정된 가정의 모습과 흑인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완전한 문장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초현실적 글쓰기를 수행하고 있다. 이 독본에 대한 해체는 이 소설을 통해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월(Gurleen Grewal)은 이 독본에 대한 모리슨의 해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행간이 띄어져 있고 대문자로 시작되며 표준적 쉼표나 마침표가 갖추어져 있는 첫 원문은 백인 중산층의 지배문화에 규범이 되는 자아형성의 유형으로 읽혀질 수 있다. 행간을 띄지 않고 적었으며, 첫 대문자는 있으나, 쉼표라든가 마침표가 없는 두 번째 원문은 첫 원문과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반복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띄어쓰기와 마침의 칸이 없어진 세 번째 원문은 간단히 말해, 계급형성과 제 1세계가 제 3세계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알레고리이다.

> The double-spaced first text, with its capitalized sentence beginning and standard punctuation, may be read as the type of self-formation that is normative in the dominant middle-class white culture. The second text, single-spaced, without the privileging signs of capital letters and the meaningful marks of punctuation, reproduces the first text with a difference that is almost the same but not quite. The third text reproduces the word order of the first without the benefit of spaces and stop gaps....Here, in brief, is an

allegory of class formation and of the first world's authorizing of third world identities.(23)

애피어(Kwame Anthony Appiah)는 그의 논문「자유주의, 개인성, 정체성(Liberalism, Individuality, and Identity)」에서 "정체성이란 가치의 문제이며,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할 때, 자신의 삶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자유란 개인적, 사회적, 더 나아가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328-329)라고 말한다. 애피어의 주장처럼 정체성은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와 결부된다. 그런 점에서『가장 푸른 눈』은 등장인물들 개개인의 정체성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흑인 전체의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딕과 제인 이야기는 오늘의 흑인의 현실이 백인의 이상적 가정의 모습과 정반대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첫 원문의 텍스트의 안정성은 두 번째, 세 번째 원문의 불안정성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백인가정의 안정성, 즉 백인이 만들어온 완벽한 한 가정의 행복과 흑인가정의 불안정한 현실을 대비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흑인의 가정은 백인의 가정처럼 안정적이지 않으며, 백인 가정의 행복은 흑인에게 있어 불가침의 영역이다. 모리슨은 이런 모순을 부각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원문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이런 원문의 파괴는 결국, 오늘날의 흑인 정체성이 매우 혼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는 백인의 가정의 완전한 모습으로 투영된 바탕에 흑인의 현실을 덧칠해 나가는 과정이며, 모리슨은 이를 통해 흑인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파괴되는가를 보여 준다.

딕과 제인의 이야기는 텍스트 곳곳에서 부분적으로 차용되는데, 모리(Aoi Mori)는 이러한 기법을 거울의 이미지(mirror image)[4]라고 해석하고 있다.

모리슨은 거울 속에 비친 백인의 미적 기준을 해체한다. 그녀의 첫 소설, 『가장 푸른 눈』은 거울 속에 투사된, 지배적 이미지를 거부하고 그것을 깨뜨리고자하는 그녀의 의도를 보여준다. 확실히 모리슨은 이 소설이 하나의 깨어진 거울 조각들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 즉, 텍스트로서 『가장 푸른 눈』을 읽는 것은 주인공의 심리적 분열의 원인을 보여주고, 깨어진 거울조각들을 앞뒤 문맥 속에 두고 그 깨어진 거울을 대체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Morrison deconstructs the white standards reflected in the mirror. Her first book, *The Bluest Eye*, demonstrates her intention to defy the controlling images projected in the mirror, which she smashes into pieces. Morrison clearly indicates that the novel consists of the pieces of a splintered and split mirror. . . That is, reading the text of *The Bluest Eye* is to contextualize the fragments of broken mirrors, articulating the cause of the protagonist's psychological split and probing the possibility of replacing the broken mirror.(58)

이 소설이 딕과 제인 이야기의 독본을 해체하고, 그 조각들을 각 장마다 배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명확히 모리슨은 이 소설을 통해서, 조각난 흑인의 상(象)을 열거하고 그 조각들을 모아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

4) 미러 이미지는 鏡象(경상)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출 때 반대로 드러나는 형상이다. 모리슨은 딕과 제인 독본의 부분들을 끌어다 그와 정반대되는 흑인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해 그것들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소설에서 딕과 제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해체적 특질은 텍스트의 예를 통해 다양하게 분석된다. 초등학교 독본을 각 장의 처음에 배열하면서 조각난 흑인 정체성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백인의 집이 "녹색" (*GREEN*)(*BE* 34)과 "흰색" (*WHITE*)(34)의 풍요로움이라면, 흑인의 거리는 "버려진(abandoned) 곳이며, 납빛하늘(leaden sky)처럼 창백하고 우울" (melancholy)(34)하다. 딕과 제인의 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THEYAREEVERHAPPY*)(38) 가정의 가장이라면, 촐리의 가정은 "추하고(wore his ugliness), 절망(dispair)과 방탕" (dissipation)(38)함 만이 있을 뿐이다. 백인의 고양이가 깔끔한 용모로 주인인 제인에게 재롱을 떤다. 제랄딘(Geraldine)의 고양이도 주인 제랄딘을 위해 재롱을 떤다. 따뜻하고 깔끔한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갈색의 피부가 그들의 주인인 백인들과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랄딘은 아이들에게 유색인종과 검둥이의 다른 점을 설명한다. 백인의 고양이가 "깔끔하고 조용하듯" (neat and quiet)(87), "유색인종도 깔끔하고 조용하다" (Colored people were neat and quiet)(87). 그러나, "검둥이는 더럽고 시끄럽다" (niggers were dirty and loud)(87). 이렇듯 모리슨은 초등학교 독본의 이상적인 가정의 상과 흑인의 비참한 모습을 병치시킴으로써 흑인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부각시킨다. 초등학교 독본과 흑인의 현실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부각하는 기법은 백인의 가정의 완전한 모습을 흑인의 현실과 대치시킴으로서 딕과 제인 이야기에 숨어있는 백인의 지배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보여준다.

독본의 부분을 흑인의 현실과 대치시키는 기법과 함께 소설 속에 드러난 상징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클로디아와 프리다는 페콜라의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기를 빌며 금잔화를 땅에 묻는다. 모리슨은 흑인 정체성의 상징

으로 금잔화(merigold)를 사용한다. 사실 모리슨은 이 소설의 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Quiet as it's kept*)' 부분에서 그녀가 가진 주제의식을 모두 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잔화가 가지는 상징성은 이 소설의 주제의식 즉, '정체성의 상실과 사랑의 부재' 라는 이미지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프리다(Frieda)와 클로디아는 곧 태어날 페콜라의 아이를 위해 금잔화 씨앗을 뿌린다. 금잔화는 피지 않았다. 두 사람은 금잔화가 피지 않은 것이 너무 깊이 심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소설에서 금잔화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이 금잔화가 페콜라 자신을 상징함과 동시에 흑인 전체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 이 금잔화의 발아의 유무는 곧 프리다와 클라우디아가 페콜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페콜라를 도우기에는 두 소녀의 힘은 너무도 미약하다. 페콜라가 푸른 눈에 기도를 드리듯 이 두 소녀 역시 금잔화를 심고 마술의 힘을 빌어보려고 한다. 꽃이 피지 않음으로써, 현실에 대한 눈을 뜨고, 이제 이 두 소녀의 관점은 '왜?' (why)(6)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how)' (6)의 문제로 변하고 있다. 인종차별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흑인 아이들에게 왜 자신들이 차별을 받아야만 하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프리다와 클로디아는 페콜라의 비극을 본 후, 차별의 원인을 인식하게 되고, 이제 두 소녀의 관점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바꿀 것인가의 문제로 나아간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페콜라를 버린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린 것이다. 페콜라의 모습이 오늘의 흑인의 모습이므로 페콜라를 감싸 안는 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다. 페콜라의 추함(ugliness)은 오늘의 흑인의 정체성이며 앞으로 극복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이 두 소녀는 그 모든 문제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비난받아야 할 것들과 싸움을 하고 서로서로 비난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덜어 진다는 것을 일찍이 우리는 알고 있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언니가 옳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내 실수였다. 나는 씨앗들을 땅속에 너무 깊이 심었던 것이다. 우리들 중 그 누구에게도 땅 그 자체가 싹을 낳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 분명한 것이라고는 희망, 두려움, 사랑, 색정 그리고 비탄 가운데 어떤 것도 제자리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더 이상 말해야 될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왜'라는 물음 외에는. 그러나, '왜' 라는 물음이 대답하기 어려운 것인 이상, 우리는 '어떻게' 속으로 피난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Once we knew, our guilt was relieved only by fights and mutual accusations about who was to blame. For years I thought my sister was right: it was my fault. I had planted them(merrigolds) too far down in the earth. It never occurred to either of us that the earth itself might have been unyielding...What is clear now is that of all of that hope, fear, lust, love, and grief, nothing remains but Pecola and the unyielding... There is really nothing more to say-except why. *But since* why *is difficult to handle, one must take refuge in* how. (*BE* 6)

이 두 소녀가 페콜라의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여성으로서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흑인여성은 백인에게는 흑인으

로서 차별을 받아야 하고 흑인 남성에게는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처해 있다. 그래서 백인의 왜곡된 미의식은 흑인 남성보다는 흑인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흑인여성들은 백인과 흑인 남성이라는 두 존재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흑인 여성에게 서로간에 형성되는 강한 연대의식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 금잔화를 중심으로 한 클로디아와 프리다의 인식이 이 소설의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모리슨은 금잔화라는 상징을 통해 왜곡된 흑인 정체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흑인 여성은 무엇을 인식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배적 미의식에 의해 흑인적인 아름다움은 언어로만 존재할 뿐 그 어떤 의미도 생성하지는 못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특히 페콜라의 거울에 대한 집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비춰보고자 하는 거울은 자신의 아름다움 자체보다는 그 거울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이 백인의 미의식과 닮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한다. 그래서 딕과 제인 이야기는 거울로서 그 역할을 하고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 는 그 거울에 반사된 현실의 모습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웨스트(Cornel West)는 그의 저서 『인종의 문제(*Race Matters*)』에서 "역사적으로 백인들의 우월주의는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그 어떤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한 흑인세대들을 만들어 내었고" (17), "이는 흑인들의 허무주의(nihilism)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15)고 논한 바 있다. 사실, 오늘의 흑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조상이나 개척자의 신화를 가지지 못하였다. 흑인들의 왜곡된 정체성을 만든 이들은 바로 백인이다. 백인이 흑인들의 사고를 만들고, 그들의 의식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흑인의 사고와 의식은 바로 백인의 사고와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페콜라가 셜리 템플의 흰

피부와 아름다운 푸른 눈을 가지기 위해 우유를 마시는 것(*BE* 23)은 정신적 허무주의에 대한 보상욕구인 것이다. 페콜라의 어머니 폴린이 인간의 사고 방식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122) 생각인 육체적 아름다움을 미덕으로 여기듯(122), 페콜라도 푸른 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 아름다움이란 때로는 그렇게 파괴적이기까지 하다. 페콜라의 허무주의는 자신이 추하다는 사고 자체에서 온 것이며, 그런 생각을 주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이며, 동시에 아버지이다. 흑인 여성에게 강요된 이런 자기 파괴적 사고방식은 흑인들 스스로가 전승해온 것이며, 그래서 흑인의 자의식은 페콜라의 의식이 분열하였듯 백인이라는 울타리 아닌 울타리 속에서 깨어지고, 조각나고, 그리고는 내동댕이쳐진다. 실제로 미국흑인들 사이에서 푸른 색 컨텍트 렌즈가 유행한 현상을 보고 많은 비평가들이나 흑인사상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음을 볼 때, 백인의 파괴적이고 육체적인 미의식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알게 한다. 문제는 이 분열된 자의식의 양상이 흑인 정체성의 문제, 즉 이중의식(double vision)의 문제로 전이된다는 것이다. 하인즈(Denis Heinze)는 "오늘의 흑인 여성들은 자본주의 미국이라는 체제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지위가 하락되는 현상과 투쟁하며, 끊임없이 강요받아온 인종적, 가부장적 관념에 의해 지배받아 왔으며, 이런 환경자체가 흑인여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미의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도한다" (59)고 말한다. 모리슨은 이 소설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미의식을 비판하고 흑인의 분열된 자의식을 극복함으로써 "흑백간의 자연스런 사회적 융화" (Heinze 69)를 이루고자 한다. 놀라운 것은 모리슨이 이 소설을 통해 미국인의 "퇴폐적 가치" (Heinze 69)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랑' 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하인즈가 말하는 흑백간의 자연스런 융화는 모리슨이 말하는 '사랑' 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라

고 할 수 있다. 흑인정체성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흑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모리슨은 이 소설을 통해 흑인이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곧 흑인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페콜라를 통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찾고, 백인의 미의식에서 위안을 삼는다. 페콜라를 상징하는 금잔화 씨앗을 깊게 파묻음으로써 페콜라를 외면하고 영원히 페콜라를 피한다(*BE* 205). 이 소설에서 '우리'로 지칭되는 등장인물, 즉 흑인들은 "페콜라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기심을 충족" (205)시키고 그녀의 단순함과 단점을 위안으로 삼고 페콜라의 외적 추함을 통해 우월감을 느낀다. 모리슨이 이 소설의 후반부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주제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린 많은 것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등장인물들이 페콜라를 버리는 것은 자신들의 흑인성을 져버리는 행위이다. 결국 페콜라를 버리는 것은 자신의 흑인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모리슨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흑인의 정체성 속의 추함과 아름다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리슨이 물론 백인의 미의식에 대한 해체와 비판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녀의 사고에서 흑인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책임의 반은 흑인의 것이기 때문이다. 모리슨에게 있어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유' 라는 말로는 설명될 수 없다. 그녀가 말하는 정체성이란 결국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야기 함(speaking the unspeakable)' 으로써 얻어진다. 그 말할 수 없었던 것들에는 물론 흑인이라는 인종적 맥락도 포함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말할 수 없었던' 잃어버린 여러 가치들을 복원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사랑', '보살핌', '관심'같은 아주 쉬우면서도 실천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녀의 소설에는 이런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논리와 여성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섬세한 탐색이 공존하고 있다.

모리슨이 해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백인의 물질적 미의식과 함께 인간을 물질적 특성, 즉 피부색과 외모로 인간의 선악을 판단하는 왜곡된 관점이다. 그녀는 "인간의 죄악이란 사람을 수치스럽거나 불명예스러운 존재로 보는 것이며, 백인문화의 죄악이란 타인을 죽이거나 해치는 물리적 행위이지만, 진실로 인간을 악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수치스럽거나 불명예스러운 존재로 보는 행위이다" (*Conversation* 100)라고 말한다. 모리슨이 서구인의 사고에서 발견하고 있는 점은 인종 차별의 영향을 말하는 것이지 서구인이 얼마나 많은 흑인들을 고통과 억압으로 다스렸는가 하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다. 모리슨은 이 작품을 통해 왜곡된 미의식에 의해 분열된 흑인의 자의식, 즉 흑인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오늘의 흑인들이 의식적으로 부정해 온 흑인성에 대한 진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2. 반서사적 글쓰기

『가장 푸른 눈』에 나타난 다관점/다성성 전략, 호-응패턴, 흑인 내의 계급 차별, 페미니즘적 관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모리슨이 이 소설을 통해 어떻게 반서사적 글쓰기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백인의 지배사상에 대한 반서사를 행사하기 위해 모리슨이 채용하고 있는 다관점/다성성 전략(multi point of view/ multivocal strategy)이다. 모리슨은 이 소설의 주된 화자로 클로디아를 내세운다. 클로디아가 등장하지 않는 장에서는 각 장에 맞는 화자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 전지적 화자에 의해 이야기가 서술된다. 각각의 장에서 다시점이 가지는 의미는 계급적, 페미니즘적, 심리적 측면 등의 여러 가지 관점들을 반영하는 서사적 기교라고 할 수 있다. 모리슨은 루어스(Charles Ruas)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처음에는 이 소설에 클로디아와 프리다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 소설은 그저 페콜라와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나는 부분적으로 3인칭으로, 거울의 이미지같이 조각을 내어 서술하였습니다. 읽어보니 페콜라,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과, 독자인 나 자신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나는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I had written the book without those two little girls at first. It was just the story of Pecola and her family. I told it in the third person in parts, in pieces like a mirror image. When I read it, there was no connection between the life of Pecola,

her mother and father, and the reader-myself. I needed a bridge. . .(*Conversation* 220)

그녀의 말처럼 『가장 푸른 눈』은 저작단계에서 이미 여러 가지 이미지를 표현하고 소설 속에 다양한 시각을 주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백인의 지배사상과 그것의 영향에 대해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반응 양식을 구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는 내용상의 다양성을 부각하도록 만든다.

시점의 삽입과 더불어 논해야 할 점은 지배사상에 의한 타자의 계급적 구분의 문제이다. 바바는 그의 논문「의태와 인간에 대하여(Of Mimicry and Man)」에서 피지배식민지인들 중에서 "식민지 지배계급에 속하면서도 여전히 백인일 수 없는" (132)타자의 이중적 모습을 논한바 있다. 즉, 흑인이면서도 백인을 닮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양태를 왜곡된 타자의 한 전형으로 논하고 있는데, 모리슨은 이를 더 발전시켜 '백인과 얼마나 닮아 가는가' 에 따라 흑인 사회의 계급적 구분이 나누어지는 흑인 공동체의 파열된 정체성의 문제를 텍스트화 한다. 물론 이 "소설의 계급적 차별은 인종 문제에 의해 가려지지만" (Mbalia 24), 모린 필과 제랄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인종 및 계급적 측면들을 분석해보면 『가장 푸른 눈』은 인종 외적인 것들을 암시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베이보이, 우드로우 캐인, 버의 윌슨, 주네 버그- 반보석목걸이처럼 그들은 페콜라를 둘러쌌다. 그들 자신의 사향 냄새에 이끌리어, 다수라는 손쉬운 힘에 쾌감을 맛보면서 그들은 재미로 끊임없는 공격으로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 .

깜둥이 에 모, 깜둥이 에 모

너의 아버지는 잠자는 검둥산
스타 타 타 츠 타 타
스타츠 타 타 타 타 타

Bay Boy, Woodrow Cain, Buddy Wilson, Juni Bug-like a necklace of semiprecious stones they surrounded her. Heady with the smell of their own musk, thrilled by the easy power of a majority, they gaily harassed her. . .

Black e mo Black e mo Ya daddy sleeps nekked.
Stch ta ta stch ta ta
stach ta ta ta ta ta (*BE* 65)

흑인아이들이 자기들 보다 검다고 해서 자신의 동족을 놀려대는 모습에서 정체성은 커녕, 백인의 지배사상에 의해 강요된 자신들의 인종적인 수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각성하지 못하고 있는 흑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클로디아의 말처럼, 이런 행동은 "자신들의 검은 피부에 대한 자기 경멸" (*BE* 65)이며, 대대로 물려받은 "자기혐오와 무지, 스스로 가꾼 절망" (65)의 표현이다. 모리슨의 시각은 모린 필로 이어지며, 이런 흑인의 자기 혐오가 심각한 계급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린 필(Mauline Peal)은 푸른색 눈과 백인에 가까운 피부로 학교 전체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고, 모린 필 자신도 백인에 가까운 피부와 푸른 눈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며, 페콜라의 흑인성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늘어놓는다. 클로디아가 모린 필이 흑인임을 상기시키자, 자신이 검다고 한 말에 모욕을 느낀다. 얼굴색에 의한 이와 같은 계급의 구별은 제랄딘(Geraldine) 또한 예외가 아니다.

자신의 피부색 때문에 인종적 우월감을 느끼고, 흑인들과 자신은 계급적인 차이가 있음을 굳게 믿는 제랄딘에게 페콜라는 "더러운 꼬마 검둥이 계집년" (92)에 불과한 것이다. 바바는 인종의 차이(difference)를 강조하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은 기존의 언어상의 이분법 즉, 백인의 세계는 '문명'이고 흑인의 세계는 '야만 내지는 혼란'의 틀에서 더 나아가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적 현존의 구분" (Articulating the Archaic 204-05)을 가져온다고 논하였다. 이 소설에서 모린 필과 제랄딘이 보여주는 계급의식은 백인이 흑인에게 강요하는 계급의식보다 한 단계 더 심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흑인과 흑백혼혈아(mulatto)들간의 계급 차별은 백인이 행하는 계급 차별보다 동족에게 저지르는 차별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이의 심리적 고통은 더하다. 동시에, 모린 필과 제랄딘을 중심으로 하는 흑인 공동체의 페콜라에 대한 처우는 페콜라 보다 더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계급의식의 표현이다. 모리슨의 언술은 이런 등장인물들의 사고에 파열구를 내고 싶어한다. 모리슨에게 페콜라를 공격하는 무리들은 "그들" (*BE* 67)로 대변되는 정체성을 잃은 무리들에 불과하며,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 흑인의 현실을 외면하는 이들일 뿐이다. 모리슨을 포함하여 197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일군의 여성작가들이 이전의 작가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 여성작가들의 언술의 방향과 대상이 결코 백인의 지배사상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의 작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전통적인 흑인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흑인 감싸안기' 라는 등식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여성작가들은 흑인정체성 문제의 본질이 흑인과 백인의 이분법적인 대립구도가 아니라 흑인내부에 있으며, 이런 인식을 통해 오늘의 흑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작품 속에서 종종 내비치고 있다. 앨리스 워커(*Alice*

Walker)가 『칼라 퍼플(*Color Purple*)』에서 흑인여성의 이중의식을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흑인 여성의 내적인 삶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였듯, 모리슨 역시 여성을 중심으로 흑인 정체성을 다시 고찰하고 있다. 모리슨이 이런 흑인여성을 통해 흑인의 전체적 문제 즉, 흑인 내부의 계급적 분류에 대한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백인의 지배담론과 이를 의식/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버린 사람들의 문제를 고찰한다.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다면, 모리슨 소설의 반서사적 성격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자메이카 태생의 작가인 진 리스(Jean Rhys)는 로체스터의 미친 부인 버사 메이슨(Bertha Mason)의 입장에서 샬롯 브론테(Charlotte Brönte)의 소설 『제인 에어(*Jane Eyre*)』를 다시 쓴 『광활한 싸가소 바다(*Wide Sargasso Sea*)』를 발표하였다. 『제인 에어』에 등장하는 버사는 서인도 제도 출신의 여성으로 탐욕스럽고 광기에 사로잡힌 여성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식민지 피지배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편견을 드러내는 실례로 분석 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성의 전형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리스는 이를 패러디하여 버사를 가부장제도에 항거하는 여성상으로 그려내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버사 메이슨이 광기와 탐욕의 상징으로 그려진 것은 식민지 지배자들의 인종적 편견과 여성을 하등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푸른 눈』에서 페콜라의 이미지는 광기와 애정결핍의 상징처럼 그려져 있다. 페콜라의 이면에는 두 가지 가부장적 성격이 부각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촐리로 대변되는 무능한 가부장제도와 두 번째로 딕과 제인 이야기로 대변되는 백인의 안정적 가부장제도이다. 그녀의 소설에서 전형적으로 이 두 가지 가부장제도가 연결되고 있는데 촐리가 두 명의 백인 남자에게 관음을 당하는 장면에서 흑인 가부장의 권위가 백인에 의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것은 곧 페콜라에게 그대로 전이된

설정을 보여준다. 촐리는 자신의 딸을 강간이라는 왜곡된 방식으로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잃어버린 가부장적 권위를 되찾으려 한다. 문제는 그 사랑의 방식이 일종의 대리만족으로서의 폭력행사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잃어버린 가부장의 권위를 획득하기 위한 촐리의 몸부림은 자신의 딸을 강간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여성성을 정복하는 짜릿한 쾌감을 통해서 자신은 자유를 얻는다는 극히 물신론적인 요소를 가진 가부장적 사고이다. 백인의 가부장제는 왜곡된 미의식으로 나타난다. 제랄딘이나 모린 필, 페콜라의 검은 얼굴을 조롱하는 마을 사람들과 동급생들 모두 이 왜곡된 가부장적 미의식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페콜라의 광기와 『제인 에어』에 나오는 버사 메이슨의 광기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운명이 남성적 권위에 종속된 여성이 보여 줄 수 있는 자기방어이다. 『제인 에어』의 남자주인공, 로체스터가 버사를 버리고 제인 에어를 선택하였듯, 촐리 역시 페콜라를 버린다. 여성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가부장의 권위에 종속되도록 만들고 그것을 관습화 시켜버리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버사와 페콜라의 광기는 중심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다. 클로디아는 페콜라를 미치게 만든 백인들의 미의식과 그것을 방조한 흑인 공동체를 비판한다. 그녀는 페콜라의 불행을 돌리기에는 "너무도 늦었다" (*BE* 206)고 말하며, 한 소녀를 불행의 나락으로 빠뜨린 그 모든 것에 대해 조소를 보내지만, 동시에 이 모든 불행이 미래에는 '사랑' 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이라는 자기 선물을 받을 수 있다" (*BE* 206)는 것을 독자에게 다시금 일깨운다. 모리슨은 소설 속에 여성에게 지워진 가부장제도의 허울을 부각시키고 클로디아로 하여금 가부장 제도의 희생양인 페콜라와 그 희생을 방조한 흑인 공동체의 문제에 '사랑' 이라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남성적 권위와 왜곡된 미의식 모두에 대한 반서사를 시도하고 있다.

페콜라라는 인물의 설정도 매우 독특하다. 모리슨은 페콜라라는 인물을 통해 광녀의 이미지를 불러들여, 남성적이고 지배중심적인 식민지 이데올로기에 도전한다. 모리는 샌드라 엠 길버트(Sandra M. Gilbert)와 수전 구버(Susan Guber)의 '백설공주 이야기' 에 대한 분석, 『다락 속의 광녀(*Madwoman in the Attic)*』를 예를 들어 『가장 푸른 눈』을 분석하고 있다.

> 『다락 속에 광녀』에서 길버트와 구버는 동화 '백설공주' 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그들은 이 이야기 속의 여성 등장인물들이 외모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고, 이 이야기의 표면상의 행복한 결말은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의도적인 가부장적 억압의 폭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 In *The Madwoman in the Attic*, Gilbert and Guber reinterpret the fairy tale, "Little Snow White", from a feminist perspective. They argue that female characters in the story are viewed as objects whose values are determined only by their physical appearance, and that the story's ostensibly happy ending is actually a revelation of men's deliberate patriarchal oppression of women. (57)

푸코가 "광기라는 것은 지배계급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와 심리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 (*Mental Illness and Psychology* 76)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동화에서 가부장의 권위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는 광기로 치부된다. 백설공주는 가부장의 미의식을 완벽히 충족한 전형적인 여성상이며, 그녀의 영원한 행복은 그 기준을 채운 자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다락 속의 광녀', 백설공주의 계모가 거울을 보며 끊임없이 미를 갈망하는 것과 같이, 페콜라도 끊임없이 거울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갈망한다. 페콜라는 자신의 추한 모습이 바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는 원인임을 이야기한다.

> 페콜라는 자신의 추함, 즉 선생님과 동급생들에 의해 학교에서 자신이 무시되고 멸시받게 했던 그 추함 속에 숨은 비밀을 알아내려 애쓰며 오랜 시간 거울을 바라보며 앉아있었다.
>
> Long hours she sat looking in the mirror, trying to discover the secret of the ugliness, the ugliness that made her ignored or despised at school, by teachers and classmates alike. (*BE* 39)

모리슨은 백인의 민담이나 정전 속에 자리 잡은 광녀의 이미지를 통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새로운 반서사를 형성한다. 페콜라는 백인의 미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그 미를 갈망하다 결국 광녀가 되고 만다. 모리슨이 페콜라의 모습을 광녀로 설정한 것은 백인 남성의 미의식이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가에 대한 저항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인의 민담과 정전 속에 광녀들이 권위에 도전하는 탐욕과 광기로 인해 비극적 일생을 맞이하듯 페콜라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어린 흑인 소녀의 백인의 푸른 눈을 갖고 싶어하고 "그 성취의 저주가 동경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포를 뛰어 넘는다" (*BE* 204). 백인의 민담에서 광녀는 선과 악의 이분법의 틀 안에서 존재함으로 읽는 독자로 하여금 미적 환상을 가지게 하는 반면, 모리슨의 광녀, 페콜라는 선과 악의 이분법의 틀 안에 있기에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가냘픈 소녀에 불과하다. 그 소녀를 짓밟는 백인의 미

의식과 가부장제의 힘은 곧 악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흑인 공동체는 그 악에 동조한 공범으로 남게 된다. 결국, 이 소설은 선과 악의 틀을 넘어서 백인의 미의식과 그에 동조하는 흑인 공동체에 대해 비판적 어조를 보여준다.

모리슨은 또한 작품을 통해 '흑인소설은 미학적으로 완전치 못하며,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라는 획일적인 규정에 대해 반박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모리슨은 「기억, 창작, 그리고 글쓰기(Memory, Creation, and Writing)」에서 "흑인 문학이 이러하다라든가 이러해야 한다라든가와 같은 단선적인 규정만큼 갸증스러운 것은 없다" (389)라고 말하며, 흑인문학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파농(Franz Fanon)의 초기 사고처럼, 식민지 피지배인들의 문학은 식민지 지배이데올로기에 맞서 민족의식의 성장과 저항적 문학의 성격을 형성한다. 할렘 르네상스로 절정을 이룬 흑인문학 역시 "민족의식(national consciousness)의 형성과 전투적 문학(a literature of combat)으로서 중요한 역할" (Loomba 214)을 하였으나, 소수의 작가를 제외하고는 미학적 성숙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물론 흑인문학에 대한 이런 평가는 백인 비평가들의 사고이며, 당대의 흑인문학에 대한 인종적 차별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모리슨을 중심으로 하는 일군의 흑인 여성작가들의 작품은 이런 평가를 불식시키고 있다. 특히, 모리슨의 작품은 '시적 사실주의(poetic realism)' 라고 불릴 정도로 미학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고, 동시에 높은 정치성을 띠고 있다.

어떤 점에서 본다면, 『가장 푸른 눈』은 오커드(Michael Awkward)가 말하는 '호-응(call and response)패턴' (14)을 가장 잘 실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백인의 수사적 기교를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그 수사적 기교를 파괴하고자 하는 '호-응패턴' 은 모리슨 소설기법 중 중요한 개념의 하나로, 즉흥적 변주(improvisation)를 중시한다. 모리슨의 작품은 흑인문학

의 전통적 요소뿐만 아니라 서구문학의 전통적 요소들을 불러들여(call), 새로운 방법으로 반응(response)하는 패턴의 작품을 쓰고 있다. 『빌러브드』 나 『솔로몬의 노래』 역시 이런 호응과 반응의 한 패턴으로 이해 될 수 있는 작품이다. 세일(Maggie Sale)은 그녀의 논문 「비평방법으로서의 호-응: 흑인 구전 전통과 『빌러브드』 (Call and Response as Critical Method: African American Oral Traditions and *Beloved*)」 에서 호-응 패턴이 "구전전통, 희극, 노동요에서 발전된 호-응 패턴은 예술의 공동체적 특징과 관련" (42)되며, "역사적 사고와 비평적 인식의 방법" (42)으로 차용된다는 점을 들어, "모리슨의 작품 『빌러브드』 가 백인의 지배적 역사에 반대하여 역사 인식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고 말한다. 『가장 푸른 눈』 역시 미의식이라는 것을 불러와 그것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보여 줌으로써 미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호-응 패턴을 통해 소설을 분석할 수 있다. 모리슨의 작품 속에 나나나는 호-응 패턴은 지배적 담론을 다시 한번 제고하고 왜곡된 지배담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식민지 담론에 대한 재독(再讀 re-reading)과 재서술(再敍述 re-writing)을 통한 반서사의 형성을 주장한 티핀(Helen Tiffin)의 견해와 맞아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며, 모리슨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 흑인문학의 전통에 대한 재개정(revision)과도 맥을 같이한다.

파농과 같은 탈식민주의계열의 비평가들이 민족문학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고 많은 흑인작가들이 민족문학에 대한 파농의 견해를 받아들였지만, 모리슨은 그런 민족적 견지에서의 주장을 텍스트 상에서 실행하기 위해 흑인의 잃어버린 언어를 회복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리슨은 잃어버린 언어를 과감히 버리고, 백인의 문학적 전통을 자신의 작품 속에 소화함과 동시에, 같은 흑인작가들의 문학적 전통을 수용하여, 여성적인 견지에서 새로

이 개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사실 탈 식민주의 이론의 쟁점 중에는 어떠한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즉, 영어로 쓸 것인가 아프리카의 토속어를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이 있어왔다. 영어 그 자체가 사실 제국주의의 언어이기에 영어로 창작을 하는 것은 모순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서사의 기본단위로서 언어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때, 모리슨이 백인의 문학적 전통, 특히,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의식의 흐름기법 같은 전통적 방법론들을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또한 한 인종의 사상적 체계의 받침대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백인의 문학적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학의 정치성과 흑인 정체성의 문제를 텍스트 속에 구현해내고자 하는 모리슨의 목적과는 배치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가 언어의 사용 문제에 대해 "민족문학과 인종문학이 나란히 발전할 수 있을 것" (434)이라 말하며, 타자의 문학의 발전은 형식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였고,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은 "나는 영어를 흉내내는 것만을 배워왔다. 한번도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다. 힘이 닿는 한 내 경험을 표출하고, 흉내를 떠나 우리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야겠다" (Achebe 434)라고 말하며, 흑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딜레마에 대하여 중요한 해결점을 제시한 바 있다. 모리슨은 백인의 전통을 흉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녀의 호-응의 패턴은 '흉내내기' 라기 보다는 수정과 반서사적 글쓰기를 위한 하나의 반복적 암시이며, 순환적 방법론이다. 셜리 템플에 대한 페콜라의 반응은 흑인의 미적 기준을 불러내고(call), 그 미적 기준에 반응(response)하는 양식은 호-응 패턴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모린 필이 '삶의 흉내(Imitation of Life)' (*BE* 67)라는 영화를 예로 들어 페콜라의 삶과 그 영화의 주인공의 삶을 동일시하는데, 이 역시 모리슨이 의도적으로 설정한

하나의 부름(call)의 장치이다. 전술한 바 있는 백인민담의 '광녀'의 이미지도 그런 부름(call)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게 환기되고(call) 구체화된 백인의 미의식은 클로디아의 반응(response)에 의해 깨어짐을 알 수 있다. 호-응패턴을 통해 모리슨은 백인의 지배담론과 맞서는 풀음, 끊음, 맺음의 동양적인 사고과정을 보여준다. 동양의 구술전통과 흑인의 민담 속의 구술전통은 서로 연관성이 많아, 그 서사적 기법이 백인의 시각적 표현과는 달리 청각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푸른 눈』을 읽다보면 이 소설이 여러 가지 목소리의 집합체처럼 느껴진다. 파열된 거울의 이미지와 더불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복합시키고 있다. 백인이 보는 앞에서 관음을 당하는 촐리의 절망의 목소리에서 푸른 눈에 모든 것을 건 페콜라의 기도, 가부장적 남성의 권위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폴린의 좌절, 백인에 가까움으로서 흑인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제랄딘의 음울한 내적독백의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소설 속에서 환기되고, 이 환기된 목소리들은 클로디아의 각성의 목소리를 통해 반응을 형성한다. 마치 재즈의 변주같은 독백들은 이 소설을 독특한 구술전통 위에 올려놓는다. 페콜라가 푸른 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믿게 되었을 때, 분열된 자신의 자아와 나누는 대화는 모리슨의 내적 독백의 기법과 의식의 흐름 같은 변주된 (improvised) 언어표현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는 이제 너랑 다신 안 놀겠어."

"가지 마."

"갈테야."

"왜? 나 때문에 화가 났니?"

"그래."

"내 눈이 충분하게 파랗지가 않아서? 내 눈이 다른 어떤 사람들 눈보다 파랗지가 않아서니?"

"아니야. 네가 바보같이 굴어서야."

"가지마. 나를 놔두고 떠나지마. 내게 그것이 있으면 다시 올래?"

"그것이 뭐야?"

"가장 푸른 눈."

I am not going to play with you anymore.

Oh. Don't leave me.

Yes, I am.

Why? Are you mad at me?

Yes.

Because my eyes aren't blue enough? Because I don't have the bluest eyes?

No. Because you're acting silly.

Don't go. Don't leave me. Will you come back if I get them?

Get what?

The bluest eyes. . . (*BE* 203-204)

모리슨이 1993년 뉴저지에서 작성한『가장 푸른 눈』의 후기(Afterword)에서 그녀는 "언어선택이 흑인의 구술언어 속의 복합성과 흑인 문화의 풍부함을 강조하고자 의도적으로 암호와 같은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 (*BE* 215)고 말한바 있다. 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구술적 언어의 변주와 각각의 등장인물들 간의 호-응 패턴은 이 소설의 갈등을 지배하는 백인의 왜곡된 미의식과 더 나아가 백인의 지배적 담론에 대한 서사적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에피소드 속에 표출되는 지배담론의 파괴적 힘과 그것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반응을 통하여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목소리의 집합, 즉 다성성(multivocality)을 인식케 한다. 이 다성성은 곧 담론의 다성성과도 연결되는 것이며, 백인의 지배적 식민지 담론에 대한 대항적 잠재력을 형성하고 있다. 계급적 측면에서 제랄딘과 모린 필을 등장시켜 모리슨은 백인의 인종차별적 미의 담론이 백인과 흑인 사이에 흑백혼혈아라는 계급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다시점 전략을 구사하여, 흑인의 목소리가 인종간의 갈등이 아니라 인종 그 아래에 하위담론, 즉 계급, 여성, 심리 등과 연결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호-응패턴과 등장인물들의 내적독백은 텍스트의 반서사적 잠재성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이 소설에서의 백인의 총체적 지배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이 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제2장 『빌러브드(*Beloved*)』

1. 『빌러브드』에 나타난 모리슨의 역사의식

모리슨 소설의 대부분은 흑인의 숨겨진 민담과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소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지나간 일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모리슨의 작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리슨의 역사서술은 결코 지나간 일에 대한 발견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작업은 지나간 역사에서 백인에 의해 왜곡되고 삭제된 것을 발견하며, 역사적 현재에 맞추어 재개정(revision)한다. 『빌러브드』가 이런 실천적인 역사 다시 쓰기의 과정임을 보여주기 위해, 모리슨의 역사의식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문제이다.

『빌러브드』라는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 모리슨의 소설을 역사소설이라는 관점에서 다룬 예는 거의 없다. 그러나, 『빌러브드』가 출간되면서, 흑인 정체성의 문제와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모리슨의 소설을 연구하는 방식은 흑인 정체성의 문제에서 역사라는 새로운 인식의 모티프로 대체 되고 있다. 모리슨이 랜덤 하우스 출판사에서 선임편집위원으로 『흑인 실록(*The Black Book*)』의 편집작업을 하는 동안 미국 흑인들이 겪은 학대와 차별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이 소설을 탄생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티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마가렛 가너(Margaret Garner)의 이야기[5]이다. 노예 사냥꾼에게 쫓기다 결국 잡힐 위험에 처한 마가렛 가너

5) 내일러(Gloria Nailer)와의 인터뷰에서 모리슨은 『흑인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식을 살해한 노예모의 방문(A Visit to the Slave Mother Who Killed Her Child)'이라는 기사를 발견하였으며, 이 기사가 이 소설을 쓰게 된 결정적인 동기라고 말한바 있다.(*Conversation* 558)

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노예로서의 고통을 물려주기를 거부하며, 아이들을 차례차례 죽였다. 결국 마가렛 가너는 유아살인죄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는 하나, 이런 역사적 사실을 다루었다고 해서, 이전에 모리슨의 작품을 바라보던 시각이 이렇듯 한순간에 바뀌었다는 점은 무척 놀라운 일이다. 『재즈(*Jazz*)』의 경우, 1920년대의 흑인 이민사를 기술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타르 베이비(*Tar Baby*)』와 같은 작품도 구전민담에서 소설의 주 내용을 빌어 왔다는 점에서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설이 출간된 이후에 독특하게도 그녀의 소설에 대해 역사라는 복잡한 개념을 빌어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빌러브드』에 대해 이런 역사적 관점을 갖게 된 배경에는 이 작품의 역사성이 이전의 작품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노예 이야기(slave narrative)는 흑인문학에서 중요한 한 서사양식으로 자리 매김 해왔다. 이 『빌러브드』도 일종의 노예 이야기이다. 그러나, 『빌러브드』는 다시 쓰는 노예 이야기이며, 이 다시 쓰기(rewriting)라는 말은 그 자체로 탈식민지성(postcoloniality)을 수반한다. 린딘스키(April Lindinsky)는 『빌러브드』를 일컬어 "재기억된 서사(rememoried narrative)" (193)이며, "원래 일어났던 일의 재연(reenactment of the originary event)" (194)라고 칭하고 있다. 『빌러브드』에 이르러, 모리슨은 숨겨지고 왜곡된 역사를 발굴하여 그 말살된 역사를 탈 구조화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역사가의 위치에 이르게 된다. 『빌러브드』를 단순한 소설로 볼 수 없음은 모리슨이 이 소설을 통해, 텍스트 속에 구현된 역사성이 얼마나 미학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성공의 실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카(E. H. Karr)는 역사의 본질을 논한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

가?(*What is History?*)』를 통해, 역사를 기술하는 이와 역사적 사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 역사가들은 사실을 잠정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기준에 따라 잠정적 해석을 덧붙인다. 역사가가 역사를 기술할 때, 사실에 대한 선택 및 배치와 해석은 서로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해하기 어렵고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역사가의 무의식적 변화를 겪게 된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은 역사가가 현재와 과거의 사실의 일부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 The historian starts with a provisional selection of facts and a provisional interpretation in the light of which that selection has been made by others as well as by himself. As he works, both the interpretation and the selection and ordering of facts undergo subtle and perhaps partly unconscious changes through the reciprocal action of one or the other. And this reciprocal action also involves reciprocity between present and past, since the historian is part of the present and the facts belong to the past.(35)

모리슨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빌러브드』는 역사가로서 모리슨의 역량을 보여준 최종 단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리슨의 신작 『낙원(*Paradise*)』은 역사적 미래의 모습, 즉 흑인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발견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빌러브드』는 작

품의 의의가 매우 크다. 『빌러브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통합하는 작품으로 백인 지배계급이 흑인에게 가한 억압을 '증언하고(bearing witness)', 그것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 하고, 그 역사를 '다시 기억(re-memory)' 하여 '다시 쓰기/재개정(rewriting/revision)'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데이비스(Christina Davis)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역사에 대한 모리슨의 재개정 작업이 가지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솔로몬의 노래』의 '증언을 하는 이름들(names that bore witness)'을 미국에서 흑인사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모리슨은 이 증언을 하는 이름들이 "역사적 경험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 (142)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며, "흑인역사의 재교정(reclamation)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 (142)이며, "흑인의 역사를 다시 쓰는 행위는 체계적으로 무시되어온 흑인의 존재와 심장의 고동을 살리는 것이며, 역사를 복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142)이라고 답한다.

바바가 역사적 현재에 사로잡혀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야기되지 않은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과거를 발견하는 것(finding unspoken, unpresented past)" (Of Mimicry and Man 130)이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걷어내는데 중요한 하나의 책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듯, 모리슨 역시 역사의 재기억을 통해서 제거되고 왜곡되고 의도적으로 삭제되어진 과거를 다시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밝히고 있다. 그녀의 역사적 재기억은 엘리엇(Mary Jane Suero Elliot)이 언급한, "가족(domestic)(181), 더 나아가 공동체(communal)의 경험적 맥락" (181)을 통하여, "흑인의 변화된 주체성(commodified subjectivity)을 획득해 가는 과정" (182)이다. 『빌러브드』는 바로 이런 과정을 소설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스에게 과거의 기억은 아직 저편에 있고, "124번지에는 악의로 가득 차 있다" (*Beloved* 3). 과거는

유령의 형태로만 존재할 뿐 등장인물들이 느끼고, 만지고, 볼 수 있는 물질적 형태와는 거리가 멀다. 베이비 서그스(Baby Suggs)가 지저분한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아들들은 모두 떠나버린다. "아무도 124번지를 찾지 않는다" (3). 아무도 이 곳을 찾지 않는 것은 그 기억의 피해자는 덴버와 세스뿐이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과거의 아픈 기억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잊혀졌음을 뜻하기도 한다. 아마도 사람들이 124번지를 찾지 않는 이유는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자발적 기억상실증이 온 마을을 덮고 있고, 유령의 존재만이 희미한 과거를 문득 문득 연상케 할 뿐이다. 폴 디(Paul D)의 등장은 곧 그 기억을 더듬어가게 하는 촉매제와 같은 것이다. 폴 디의 등장으로 인하여 세스의 기억은 하나하나 스위트 홈(Sweet Home)으로 옮겨가게 된다. 가너 농장에는 백인 주인이 자기 성을 물려주고 이름을 붙이며, 인간적인 대우를 해준다. 그러나, 학교선생(school teacher), 즉 스쿨 티쳐가 나타나면서 상황은 변한다. 학교선생은 노예를 짐승으로 여기며 온갖 억압을 가한다. 세스와 할(Halle)은 노예를 다른 곳으로 팔려는 학교 선생의 계획을 미리 알고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할과 세스는 비밀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할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홀로 도망을 친다. 도망을 치던 도중, 세스는 백인 장기 노역자의 딸 에이미 덴버(Amy Denver)의 도움을 받게 되고 아이를 출산한다. 천신만고 끝에 124번지에 도착한 세스는 베이비 서그스를 만나게 되고 평화가 잠시 찾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베이비 서그스에게 도망노예가 들어왔다는 말을 들은 마을사람들은 평소 베이비 서그스를 시기해왔기에 도망노예가 있다는 사실이 노예사냥꾼에게 알려지게 된다. 노예 사냥꾼들이 나타나자, 세스는 딸이 붙잡혀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딸아이를 죽인다. 간난아이였던 덴버까지도 헛간 판자에 내던져 졌으나 빗나가는 바람에

살아남는다. 아이를 살해한 세스는 형기를 마쳐야 했고, 그간 덴버는 베이비 서그스에 의해 길러진다. 폴디가 등장하자, 잊혀졌던 세스의 기억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루쉬디(Ashraf H. A. Rushdy)는 모리슨의 역사적 관점이 "역사적 사실이나 노예제도에 있다기보다는 그 사실과 제도를 몸소 경험한 '사람' 에 있다고 주장한다" (569). 이 말은 "모리슨의 소설이 노예제도라는 경제적 토대에 대한 비판의식" (Mbalia 18)을 함의하고 있으며, "노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본주의에 있다" (Mbalia 19)는 맑스주의적 입장과 다소 상반되는 면이 있다. 음밸리아(Dorothea D. Mbalia)는 모리슨의 소설을 사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그 역사의식을 논하고 있는데, 그는 모리슨의 소설이 노예제도를 상부구조로 보고, 자본제의 생산양식을 노예이야기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노예 이야기 일부를 놓고 본다면, 충분히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은 이 소설의 일부분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일반화한 것에 불과하다. 모리슨의 역사의식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이분법적 대립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적 대립구도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을 더욱 중점적으로 그리려는 것이다. 모리슨의 역사의식은 그 대립구도라든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 귀결된다. 루쉬디는 "인종의 기억은 상상 속에서 존재하지만, 세대를 통해 전승되면서 하나의 총체적 경험으로 진화한다" (567)고 말하며, 사람이 가진 기억과 총체적 경험으로서의 진화가 모리슨의 역사의식의 일부임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이 소설의 플롯이 개인에서 집단, 124번지에서 마을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숨겨진 역사에 대한 재기억의 과정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모리슨의 역사의식의 단면은 세스와 덴버를 통해서도 제시되고 있다. 세

스에게 백인의 권력은 너무도 큰 것이었다. 백인세계의 권력은 "그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들며, 우리를 더럽힌다. 너무도 더럽혀진 나머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자신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Beloved* 251). 소설의 초반부에서 백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경험한 스위트 홈(Sweet Home)의 가족들은 육체적으로는 이미 그 세계의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느낄 만큼 길들여져 왔으며, 정신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절망적 상태를 보여준다. 아무도 찾지 않는 124번지와 그 곳을 지키며, 살아가는 세스와 덴버는 분명 '잊혀진 사람들(the forgotten)' 이며, 주체성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약한 흑인의 전형이다. 폴 디가 등장하면서, 세스는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려간다. 되살아나는 그 기억 하나 하나에는 때로는 즐겁고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시절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쿨티처(schoolteacher)가 나타난 이후의 암울한 노예 생활을 뿐이다. 그녀가 농장을 도망치고, 자신의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한 기억은 빌러브드(Beloved)를 더 이상 영적인 존재로만 남아있게 하지 않는다. 기억이 살아남으면서, 빌러브드는 엄연한 육체적 존재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곧 세스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다만 기억에 그치는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빌러브드가 비록 유아기의 탐식성을 가진 존재라고는 하나, 빌러브드의 이런 탐식적 육체성은 세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과정을 주기 위한 작가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모리슨은 과거의 기억의 추상적인 개념이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을 띨 수 있도록 빌러브드라는 존재를 창조하고 있다. 세스와 빌러브드는 서로에게 가하는 육체적, 물리적 학대를 통해 서로의 존

재를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는 세스에게 있어, 과거에 대한 하나의 보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재를 각성케 하는 계기가 된다. 이를 통한 세스의 각성은 곧 "누군가를 구하는 것" (*Beloved* 251)이다. 물론 모리슨은 세스의 각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행하는 이는 세스라기 보다는 그녀의 딸 덴버이다. 덴버는 세스가 빌러브드에게 점점 더 빠져 들어가는 것을 경계한다. 그 경계는 빌러브드라는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악마성에 대한 경계라기 보다는 빌러브드라는 잘못된 과거가 가져오는 해악에 대한 각성이라고 하겠다. 덴버는 마을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마을 사람들은 빌러브드를 몰아내기 위해 124번지로 향한다. 마을 사람들이 왔을 때, 빌러브드는 이미 124번지를 떠난 후이다. 빌러브드는 이제 124번지를 찾지 않을 것이다. 모리슨은 잃어버린 과거의 영적 존재인 빌러브드가 떠나고, 세스는 이제 사람들의 곁으로 갈 것임을 차분한 어조로 말한다.

> 빌러브드는 현관에 혼자 서서 미소짓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은 텅 비어 있다. 세스는 그녀에게서 멀리 달아나고 있다. 빌러브드는 세스를 잡고 있던 손이 텅 빈 것을 느낀다. 이제 세스는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속으로 달아나 그들과 합류하고 빌러브드를 뒤로 두고 떠나고 있다.

> Standing alone on the porch, Beloved is smiling. But now her hand is empty. Sethe is running away from her, running, and she feels the emptiness in the hand Sethe has been holding. Now she is running into the faces of the people out there, joining them and leaving Beloved behind. (*Beloved* 262)

세스와 덴버, 폴 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던 과거에 대한 기억은 빌러브드가 떠나면서 하나 하나 사라져가고 있다. 모리슨에게 있어, 이 부분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사색이 숨어 있다. 이 부분 이후의 모리슨의 태도는 다소 미온적이지만, 폴 디가 세스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장면을 통해 화해와 공존의 공간을 연출한다. 과거가 세스에게 자식을 죽이게 하는 잔인성을 부여했다면, 현재는 세스로 하여금, 과거와의 진지한 화해를 가능케 한다. 세스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위해 그녀의 각성을 이끌어 내는 사람이 덴버라면, 과거에 대한 화해의 몫은 폴 디에게 있다.

그는 누비이불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금속빛 나는 정교한 등을 생각하고 있었다. . . 단지 이 여인 세스 만이 그를 남성답게 해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좀더 그녀에게 들려주길 원했다.

"세스, 나와 당신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종류의 미래를 공유해야만 해."

그는 기대어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당신은 정말 멋져, 세스, 당신은 정말."

그들은 손가락을 깍지 낀다.

"내가요? 내가 말인가요?"

He is staring at the quilt but he is thinking about her wrought iron back.....Only this woman Sethe could have left him his manhood like that. He wants to put his story next to hers.

"Sethe," he says, "me and you", we got more yesterday than anybody. We need some kind of tomorrow."

He leans over and takes her hand. With the other he touches her face. "You your best thing, Sethe. You are." His holding fingers are holding hers.

"Me? Me?" (*Beloved* 273)

모리슨에게 있어 흑인의 역사는 정체된 노예의 역사가 아니라 보편적 인간의 역사이며 미래를 예시하는 희망적인 것이다. 1993년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면서 스웨덴 한림원은 모리슨의 소설은 흑인의 특수한 경험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고 있다고 수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김애주의 주장처럼 "모든 위대한 작품은 보편적이며, 단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만으로는 모리슨의 작품들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9)이라 할 수 있다. 그녀가 위대한 현대 작가 중 한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그녀의 작품이 시적인 문체를 겸비함과 동시에 높은 정치성을 구현하고 있으며, 흑인의 특수한 경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실천적 가치 때문이다. 『빌러브드』는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작품이다. 『빌러브드』에 와서 모리슨이 흑인의 삶 속에서 찾아낸 특수한 경험은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발전한다.

"6000만 그리고 그 이상(Sixty Million and More)을 위하여" (*Beloved* 1)라는 『빌러브드』의 헌사는 이런 흑인의 특수한 경험을 잘 보여준다. 6000만이란 숫자를 통하여 모리슨은 역사적 문제를 소설의 중심에 세운다. 이 숫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모리슨의 말처럼 이 숫자는 '콩고의 노예선' 이야기를 통해 힌트를 얻은 듯 하다. 모리슨은 이 숫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보고서는 콩고 노예선을 그 배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흑인노예들로 가득 채웠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백인들은 400명을 실어나르기로 약속을 하면 800명을 한 배에다 빽빽이 채워 넣었다. 그들은 반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반이 죽었다.

One account describes the Congo as so clogged with bodies that the boat couldn't pass.... They(white men) packed 800 into a ship if they'd promised to deliver 400. They assumed that half would die. And half did. (Clemons 1)

이는 흑인의 특수한 경험, 즉 백인들이 흑인에게 저지른 범죄 중 일부일 뿐이다. 이 6000만 명이란 수는 모리슨에게 있어 경험적 기호로 작용을 한다. 동시에 그녀는 이 숫자에 '그 이상(more)' 이란 말을 덧붙임으로써 더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 이상(more)' 이란 말은 위의 헌사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9장 25절의 '사랑하는 사람(Beloved)' 이란 말로 다시 강조되고 있다.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내 사랑을 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하는 이로 부르리라.

I will call them my people,

which were not my people;
and her beloved,
which was not beloved. (2)

이렇듯, 모리슨은 흑인의 역사와 그 속에 숨은 사람에 대한 진지한 사랑이 6000만의 죽어간 흑인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흑인, 더 나아가 인간 전체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달링(Marsha Jean Darling)의 이 헌사에 대한 분석은 이런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빌러브드라는 제목은 이 독특한 소설의 제목이며, 한 아기 유령의 이름이며,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자로 보이는 한 젊은 여자에게 주어진 이름이기도 하다. 『빌러브드』에서, 오하이오 주, 신시네티, 블루스톤가 124 번지에 "죽은 자"와 "살아 있으나 죽은 자"를 고려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

Beloved is at once the title of this extraordinary novel, the name of a baby girl spirit, and the name given a young woman who appears to be the "living dead". In *Beloved* "the dead dead" and "the living dead" 124 Bluestone Road, Cincinnati, Ohio, to reckon and be reckoned with. (4)

위의 글을 통해 우리는 『빌러브드』가 세 가지의 인간형과 세 가지 시간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빌러브드』는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the living dead)의 이야기이자, 이미 죽은 자(the dead dead)의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위의 두 가지 존재양상이 병존하고 있다.

즉, '살아있으나 죽은 것' 이나 다름없는 세스를 비롯한 흑인들과 '이미 죽은 자'인 빌러브드가 병존한다. 이 두 존재양상은 세스와 빌러브드라는 인물로 상징되고 있으며, 삶과 죽음의 융합이 이루어진다. 빌러브드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등장인물들이 온전한 모습을 찾음으로써 소설의 전개는 과거의 정신적 상처를 지우고, 현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간다. 모리슨의 이러한 시간적 전개는 그녀의 역사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보다 못한 자' 가 '죽은 자' 를 만나 삶의 중요성을 찾아가고 나아가 그 죽은 자의 과거에 대한 살아있는 자의 사랑은 흑인의 공동체의 문제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보편적 인류애의 문제로 발전한다. 모리슨은 이 결합의 양상을 등장인물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스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the living dead)' 를 상징하며, 빌러브드는 '죽은 자(the dead dead)' 를 덴버는 '살아 있는 자(the living alive)' 를 상징한다.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이 세 인물은 바로 흑인의 역사이다. 이 흑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역사는 텍스트를 통하여 통합을 이룬다.

빌러브드
너는 나의 누이
너는 나의 딸
너는 나의 얼굴. . . 너는 나.
다시 너를 찾구나. 네가 다시 내게 돌아왔구나.
너는 나의 빌러브드
너는 나의 것
너는 나의 것
너는 나의 것.

Beloved

You are my sister

Your are my daughter

You are my face; you are me.

I have found you again; you have come back to me

you are my Beloved

You are mine

You are mine

You are mine (216)

과거성, 현재성, 미래성은 이렇게 서로 융화되어 간다. 이 융합은 빌러브드의 탐식적, 애정결핍성의 과거에서 그러한 과거에 대한 회한과 절대적 사랑을 가진 세스로 넘어가며, 이 모든 탐식, 애정, 회한, 절대적 사랑을 모두 목격(witness)한 덴버를 통해, 흑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애정으로 발전하며, 이것이 공동체라는 틀로 이어진다.

독특한 순환구조(circularity)를 취하고 있는 이 작품은 작가가 주도면밀하게 위의 사랑의 유형들을 대치, 융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이 전체 3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순환구조를 취하기 위하여, "124번지-" 로 시작되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124번지-" 는 소설의 줄거리 진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설의 전개상 124번지의 "원한(spiteful)" (3)은 세스와 덴버의 주위에 과거의 아픔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암시임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한 복선이 된다. 스위트 홈에서의 과거의 기억이 현실이 되면서 124번지는 "시끄러워지고" (169), 과거의 아픈 상처가 아물면서 124번지는 "조용해진다" (239).

소설의 분위기, 장소 등을 명시하는 이 첫 문장들은 반복적으로 순환하

며, 과거성, 현재성, 미래성을 드러내고 있다. 첫 문장 "124번지는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3)는 흑인의 과거를 잘 명시해주고 있다. 원한으로 가득 찬 이는 빌러브드일 수도 있고, 이 소설의 등장인물 전부일 수도 있으며, 흑인 전체 일 수도 있다. 원한으로 가득 찬 과거는 현재의 모습과 어울려져 있으며, 소란과 분노로 가득차 있다. 과거와 현재가 떠난 자리에 비로소 평온함이 마을을 덮는다. 바우어즈(Susan Bowers)는 『빌러브드』는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한 작품이라고 평하면서 이 작품이 과거의 고통과 잃어버린 것들을 복구해가고 있음에 주목한다.

> 빌러브드는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 그것들을 아름답고 새로운 전체 속에 결합시키고, 고통과 죄악을 내던지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삶이 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소설이다.

> *Beloved* is a novel about collecting fragments and welding them into beautiful new wholes, about letting go of pain and guilt, but also recovering what is lost and loving it into life.(74)

바우어즈의 주장처럼, 모리슨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역사적 시점, 즉,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잘 짜여진 구조로 조합하고 있다. 이 소설의 내용이 개인적 이야기에서 공동체의 이야기로, 과거에서 현재로 나아가는 점을 볼 때, 교정의 작업은 오늘의 관점에서 흑인의 현실을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모리슨의 역사의식을 반영한다.

2. 반역사적 글쓰기

『빌러브드』는 흑인노예들이 겪었던 숨겨진 고난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인간이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오늘의 흑인들과 미국인들에게 던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숨겨진 과거의 일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 즉 '역사적 현재'를 구성하는 작업이다. 마가렛 가너(Margaret Garner)사건에 바탕을 둔『빌러브드』는 작품의 주된 서사방법인 재기억(rememory), 재개정(revision)의 과정을 통해 백인의 지배적 역사서술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이를 교정한다는 점에서 역사에 대한 재서술이며 반역사(counter-history)[6]적 글쓰기라 할 수 있다. 모블리(Marilyn Sanders Mobley)의 논거는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나는 모리슨이 노예이야기라는 장르를 바꾸고 그것을 통해 현대의 독자들에게 노예들이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 '기억'이란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다시 말해 모리슨은 고전적인 노예이야기들이 간과했던 노예들의 삶의 면면을 탐색하고 보여주기 위해 노예들의 내면의 삶에 대한 은유적 기호로서 '기억'이란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의 독자들에게 노예제도란 하나의 지난 일이 아니라, 무시되고, 억

6) 스피박은 백인의 경험주의 역사(empirical history)는 제국주의 역사의 정당성을 위해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녀는 "비평의 임무 중 하나는 이러한 왜곡된 역사 재현(representation) 속에 숨은 진실과 허구를 문학적 분석을 통해 밝혀내어야 한다" (Young 159)는 점을 지적하였고, 영(Robert Young)은 이를 "반역사(counter-history)" (159)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눌려져 있거나 잊혀진 과거의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 I would like to argue that Morrison uses the trope of memory to revise the genre of the slave narrative and to thereby make the slave experience it inscribes more accessible to contemporary readers. In other words, she uses memory as the metaphorical sign of the interior life to explore and represent dimensions of slave life that the classic slave narrative omitted. By so doing, she seeks to make slavery accessible to readers for whom slavery is not a memory, but a remote historical fact to be ignored, repressed or forgotten. (360)

모리슨의 기억과 교정이라는 서사방법은 예술의 정치적 실천성을 부각시키는 기법이다. 모리슨은 "모든 훌륭한 예술은 정치적이다" (*Conversation* 3)라고 말하여, 예술이 가진 정치적 실천을 강조한다. 그녀에게 서사라는 과정은 결코 창작 작업 그 자체의 의미만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에게 있어서 서사라는 지난하고 고독한 과정은 인식을 얻기 위한 주요한 수단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노벨 수상강연(Nobel Lecture)에서 그녀는 "서사란 내게 단순히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식(knowledge)을 흡수하는 주요한 과정 중의 하나" (2)라는 믿음을 표현했다. 피치(Linden Peach)가 그의 저서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에서 주장하듯, "『빌러브드』는 표면적으로 세스와 폴디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로맨스이지만, 이 소설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관계 주변의 컨텍스트이다" (93).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역사적 아픔을 치료하는 과정" (93)이며, "숨겨진 이야기들을 다시

발굴함으로써 백인들이 흑인에게 저지른 만행에 맞서고자하는 흑인에 대한 사랑" (94)이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역사, 즉 지나간 과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 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소설의 '과거'란 단순한 시간적 맥락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등장인물들의 기억을 되짚어 가는 것임과 동시에 그 과거를 딛고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일구기 위한 탐색과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토니 모리슨의 글쓰기는 "고요한 전투" (*Playing in the Dark* 4)이며, "사회의 모든 논쟁의 양상을 묘사" (4)하는 실천적 글쓰기라 할 수 있다.

크루즈(Harold Cruse)는 "흑인이 처한 상황 그 자체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독특한 성격을 띠게 만든다" (23)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흑인을 위한 어떤 제도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국가와 같은 상부구조에 의해 개념적으로나마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흑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것이 곧 흑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절대적 문제가 된다. 흑인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이 정체성의 문제는 항상 드러나는 하나의 전형이 되어왔다. 흑인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으로서의 전형의 문제와 더불어, 흑인작가들은 또 하나의 전형적인 시각을 교정의 대상으로 삼는다. 타이슨(Lois Tyson)은 '교정[7]'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흑인문학의 정치적 내용 중에는 미국 흑인들의 전형을 교정하는 것, 미국 역사에서 흑인을 잘못 묘사한 것과 미국역사에서 미국 흑인을 빠뜨리는 것을 교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
> Political content of African American literature includes correcting

7) 모리슨은 이를 재교정(reclamation)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stereotypes of African Americans; correcting the misrepresentation of African Americans in American history and the omission of African American from American history; . . . . . .(389)

모리슨의 기억과 교정의 과정은 탈식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제도에 대한 해체만을 부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리슨 스스로 그녀의 기억(remembrance)의 책략은 "과거로 돌아가 남겨진 것이 무엇이며, 이 남겨진 과거의 기억들이 미래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긴 여정" (Smauels and Hudson-Weems 97)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녀의 '기억하기(remembrance)' 라는 것은 어느 정도 미래를 염두에 둔 것이며, "과거의 결과와 대면하는 인간을 창조해내기 위한 과정" (Rushdy 580)이다.

『가장 푸른 눈』과 『빌러브드』는 두 소설 모두 흑인의 주체성(subjectivity)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빌러브드』가 『가장 푸른 눈』과 다른 것은 추상적인 정체성에서 더욱 구체적인 정체성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푸른 눈』이 '검은 것은 아름답다' 라는 주제의식에서 출발하듯, 『빌러브드』 역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과 그 자유로워진 자신의 소유주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Freeing yourself was one thing; claiming ownership of that freed self was another)" (*Beloved* 95)라는 주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이 남북전쟁(Civil War)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에는 이런 주제의식을 염두에 둔 설정이다. 모리슨이 남북전쟁이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은 이유는 남북전쟁이 노예해방이 아니라, 흑인들이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회피 내지는 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남북전쟁은 결코 노예 해방 전쟁이 아니다. 남북전쟁이 흑인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나, 그 전쟁은 결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 팽배했던 남북 간의 경제적 불균형이 남북전쟁을 일으킨 원인이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남북전쟁을 통한 노예해방은 불완전한 미완의 노예해방일 수밖에 없었다. 모리슨이 주목한 점은 불완전한 자유를 획득한 흑인들이 과거를 회피하고 망각함으로써 자신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승은은 이 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한다.

> 미국사회에서 노예제도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남북전쟁이 종결되고 노예 해방령이 선포되면서 막을 내렸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노예제도라는 치부가 노예 해방령으로 해결되었다고 믿고 싶어하는 백인들이 소망을,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굳이 들추기를 꺼리는 흑인자신들의 심리적 억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144)

모리슨에게 흑인이 자신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부정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1970년 『흑인실록(*The Black Book*)』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얻은 많은 지식은 그녀로 하여금 역사의식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텍스트화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다. 텍스트에서의 역사기술은 분명 통시적 사실을 연대, 계층, 계급 등으로 분류하는 역사기술과는 다른 것이며, 그런 통시적 사실을 텍스트화하는 작업만으로는 모리슨이 얻고 싶어하는 흑인 역사성의 복구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마가렛 가너 이야기같은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들의 조각들을 모아서 등장인물을 통해 다시 기억케 한 후, 이를 재평가하게 함으로써 생동감있는 역사적 사실을 만들고 있다. 이런 과정은 흑인의 정체된 역사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거스(Deborah Guth)의 말처럼 재기억은 곧 "기억의 담론(discourse of memory)을 일으키

는 것" (588)이며 그 "기억의 담론과 과거라는 것은 역동성을 가지게 되는 것" (588)이다.

특히, 세스의 기억은 곧 하나의 촉매제가 된다. 소설의 시작부분에서 세스의 기억은 개인적인 기억에 불과하지만, 이 개인적인 기억은 결코 124번지에 머물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며, 주위의 환경에 따라 파동을 일으키는 파도와도 같은 것이다. 기억은 그렇게 역동적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것이 된다. 더욱이, 빌러브드의 등장으로 그 기억은 구체적이고 물질적 현실, 즉 축조된 현실(constructed reality)이 되는 것이다. 빌러브드의 몸은 곧 과거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의 몸짓과 말, 그리고 그녀의 생각은 곧 흑인의 굴절된 과거가 되고, 기억은 이제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현실이다. 마을 사람들이 빌러브드를 몰아내러 감으로써 개인의 기억은 이제 재구성되고 공동체의 기억이 된다.

모리슨 소설에서 나타나는 기억의 역동성은 그녀가 이 소설을 통해 추구하는 반역사의 한 부분일 뿐이다. 스피박(Gayatri Spivak)은 텍스트를 하위주체로 분류하고, 작가를 역사가로 정의한 적이 있는데, 그녀는 하위주체(subaltern subject)가 그 자체로 역할을 함을 강조한 적이 있다. 이 말은 곧 작가를 저작자라는 총칭으로 분류하고, 그 혹은 그녀의 작품을 하위주체라고 할 때, 작품 그 자체가 역동적 특질을 가지는 것은 다소 해체적 사고이다. 물론 스피박의 사고는 포스트 구조주의적 사고를 원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모리슨의 소설을 스피박의 사고를 빗대어 생각해 볼 때 매우 타당한 견해이다.

모리슨이라는 작가가 이 소설을 썼다는 사실 자체를 떠나서, 이 소설이 가지는 백인의 흑인사 왜곡에 대한 비판적 서사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 소설의 기억의 과정은 지배담론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반테

제(antithesis)로서 작용한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온 지배담론은 푸코가 선구적으로 통찰하였듯 지식과 권력의 한 결합 양상일 수 있다. 푸코는 진리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인식, 담론, 대상에 대한 지배라고 설명되는 권력의 구조와 영합해 왔다" (*Power/Knowledge* 117)고 주장하였는데, 하나의 학문적 구조이자, 과거에 대한 통시적 조망으로서의 역사 역시 하나의 인식구조이며, 지배담론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탈식민주의 계열의 많은 비평가들도 이러한 점에 대해 이미 인식하였고, 모리슨의 소설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발견된다.

지배담론으로서의 역사는 통시성을 가지며, 계급적 지배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역사의 서술은 철저히 인물과 사건의 체제(system)를 따른다. 그래서, 지배담론으로서의 역사는 언제나 과거의 일이며 정태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리슨의 텍스트 속에 나타나는 역사기술은 공시적인 것이며, 개인적 자유와 공동체의 공존을 중심으로 하고 피지배계급의 숨겨진 역사에 근거한다. 개인의 심리와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모리슨의 역사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포괄한다. 결과적으로 모리슨의 소설은 지배담론으로서의 역사에 반테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음벨리아(Dorothea Mbalia)같은 맑시즘 계열의 비평가들은 이런 변증법적인 작용을 강조하면서, 이 소설을 심지어 "정치적 연대와 공동체의 투쟁을 위한 기억과 망각의 과정" (Mbalia 87-88)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리슨의 역사에 대한 인식체계의 계급성 만을 강조한 의견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 소설에 나타난 역사 인식을 보이지 않는 적, 즉, 현대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서구의 지배담론의 폐해와 이에 대한 대안제시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도입부-"124번지는....."-에서부터 의도적 장치를 제공한

다. 이 소설의 도입부는 역사적 현재를 제공하는데, 물론 이 역사적 현재는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과거의 일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도입부의 여러 장치를 통해서, 이 소설은 독자에게 일시적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 라는 효과를 획득한다. 서사의 중간에서 시작하는 이 소설은 첫 도입부와 중간에서 시작하기(*in medias res*)에 대해 모리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나를 매우 어렵게 했던 것은 내가 사용한 중간에서 시작하기 기법이 바로 여기, 첫 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매우 갑작스럽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여기에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도 없다. 독자는 깜짝 놀라고, 소설 속으로 확 당겨져, 완전히 낯선 환경 속으로 휩쓸려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나는 중간에서 시작하기라는 기법이 독자와 소설의 인물들 사이에 가능한 공유하는 경험의 첫 필치가 되기를 원한다.

> Because the *in medias res* opening that I am so committed to is here excessively demanding. It is abrupt, and should be so. No native informant here. The reader is snatched, yanked, thrown into an environment completely foreign, and I want it as the first stroke of the shared experience that might be possible between the reader and the novel's population. . . .
>
> (The Opening Sentence of *Beloved* 91)

이 소설의 도입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간략히 정리한 다면, 그것은 '기억과 망각의 교차점' 이라고 할 수 있다. 『빌러브드』의 도입부는 특히 그로테스크한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원용하여 파괴적이고, 충격적인 암시를 나타내는 기호적 특질의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빌러브드』가 '기억과 망각사이의 괴리와 극복', '지배담론으로서의 역사의 폐해와 그것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의 반역사'라는 두 가지 원리로 분석될 수 있다고 할 때, 위의 도입부는 매우 중요하다. "124번지-"라는 기표를 통해 모리슨은 독자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기억을 빠르게 환기시키고, 서사의 중간에서 시작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잇는 교차점의 기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수법은 당황스러운 것일 수 있겠으나, 재기억의 과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기억에 대한 환기는 곧 작품 전체를 통해 개인적 기억에서 가족의 기억으로, 다시 공동체의 집단적 자의식으로 진화한다. '빌러브드'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과거는 세드에게 있어 "조각공에게 10분동안 몸을 팔아야 했던" (5) 쓰라린 과거이고, "자신만의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상실" (20)의 기억이다. 덴버에게 과거는 회피해야할 세상의 기억이며, 그래서 만든 그녀만의 공간은 지극히 "사적이고" (29), "상처투성이 세상이 주는 아픈 상처로부터 격리된" (28) 은신처이다. 즉, 이 두 등장인물들은 아픈 과거의 "피해자" (3)이며, 그들은 아픈 과거의 상처를 철저히 회피하고 세상으로부터 은둔하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 빌러브드가 등장하면서, 개인적이고, 도피적인 현재는 끝이 나고, 이제 세스, 덴버, 빌러브드라는 세 명의 인물은 가족의 공간에서 투쟁하고, 서로를 "핥고, 맛보고, 잡아먹을 듯이" (57) 바라본다. 과거가 물화한 인물인 빌러브드의 등장을 통해, 이제 과거는 번득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세계" (62)로 변한다. 기억되고 혼란하고 소란스러워진 과거의 기억은 마을의 공간을 통해 해소되고, 마침내 기억은 모리슨이 이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강조하는 기억해야할 소중한 것이 된다.

이것은 전해질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해질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해질 이야기가 아니다.

It was not a story to pass on.(274)

It was not a story to pass on.(275)

This is not a story to pass on.(275)

이 소설의 마지막 결말은 '전해 질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단편적인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강한 부정은 긍정으로 작용한다. 마지막 이 결론은 마치 변증법의 '부정의 부정' 처럼, 전해질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강한 긍정성을 획득한다. 빌러브드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야기는 전해질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전해져만 할 이야기이다. 여기서의 전해진다(pass on)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그냥 이야기 될 어떤 사건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가슴속에 영원히 각인되어야 할 현실의 문제를 전하는 것이다. 정체되어 있는 일반의 역사의 개념과는 달리, 새로 쓰는 역사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과거의 기억들은 다양한 인물들의 입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 된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을 과거의 아픈 상처를 기억해 내고 이를 통해 비로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아픈 과거의 기억은 화자의 냉정하고 차분한 어조를 통해 정리되고 있다.

기억은 차례차례 사라져 가고 발자국만이 아니라, 물, 발 아래로 밟히는 모든 것이 잊혀져 간다. 남은 것은 이 날씨일 뿐이다. 잊혀진 자

나 이야기되지 못한 이들이 숨결은 아니다. 처마에 부는 바람, 빠른 속도로 녹아 내리는 봄... 그냥 날씨만 남았다. 분명 입맞춤해달라는 애원의 소리도 없으리라.

By and by all trace[8] is gone, and what is forgotten is not only the footprints but the water too and what it is down there. The rest is weather. Not the breath of the disremembered and unaccounted for, but wind in the eaves, or spring ice thawing too quickly. Just weather. Certainly no clamor for a kiss. (*Beloved* 275)

이렇듯, 『빌러브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의 틀 속에 묶어 매우 독특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이 세 가지 시점의 통합은 곧 기억된 역사적 사건이 현재의 사건, 즉 역사적 현재가 됨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은 또한 환상문학과 담론의 결합, 민담과 담론의 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애주는 『빌러브드』를 환상문학(fantasy)으로 분류하면서, "환상문학의 장르 안에 소설적 담론, 시적 담론, 역사적 사건 기술과 역사에 대한 저널리즘이 복합되어 있다" (220)고 주장한다. 유령이 등장하고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기억이 복합된다는 점은 환상문학이란 범주를 빌어 설명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를 다시금 되살리고, 그 역사에서 왜곡된 부분들을 교정해 나가는 작업은 환상문학의 범주를 넘어 백인에 의해 쓰여진 역사를 부정하고 이를 다시 써나가는 과정이다. 지배적 백인사관은 항상 실증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한다. 이는 사실에 기초하여 쓰여진 역사가 가장 객관적인 역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백인들이 흑인과 같은 타자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훼손하여 왔다고 볼 때, 백인의 실증적 역사는 결국 타자의 역사

8) (필자 주) all the memory of 124 in this novel.

를 왜곡 내지는 훼손함으로써 백인의 우월성을 더욱 강조한 역사이다. 이 소설은 엄밀히 말해 백인이 말하는 객관적 역사라고 할 수는 없다. 모리슨이 『빌러브드』는 객관적 사실한 것이 아니다. 흑인의 역사는 백인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거나 배제되었으므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모리슨의 서술은 민담이나 환상 같은 재료들을 가져와 텍스트 속에 다시 구성하고 이것들에 역사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모리슨의 소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읽는 독자는 자연스럽게 흑인의 잃어버린 역사를 생각하게 된다. 모리슨은 민담이나 환상 같은 다소 역사서술과는 거리가 먼 것들에 흑인의 현실을 결합하여 생동감 있는 역사를 창조한다. 해리스(Trudier Harris)의 주장처럼 그녀의 소설에 나오는 역사는 민담에 가깝다. 그녀의 민담은 이전의 흑인의 노예이야기에 나오는 민담의 일반적 속성을 뛰어넘는다.

> 소설에 결합된 민담의 전통 구조, 일화, 전설, 종교적 이야기, 속임수 같은 이런 친근한 문학적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모리슨은 동족의식과 함께 하나의 흥미로운 돋음조각양식을 제공한다. 처음에는 쉽게 알 수 있고, 전통적인 민담의 요소들을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종종 그녀는 역사적 민담의 재료를 변형한다.

> Against this familiar literary history of tales, legends, beliefs, trickery, and structure of folk traditions being incorporated into fiction, Morrison simultaneously exhibits a kindred spirit and provides an interesting bas-relief. She may initially use recognizable, traditional items of folklore. . . but, more often than not, she transforms historical folk materials. (Harris 7)

모리슨의 소설은 "역사적인 민담의 재료를 가져다 새로운 재구성의 과정을 거친다" (Harris 8). 『빌러브드』에서 모리슨은 민담 중에 유령이야기들을 가져다 새롭게 구성한다.

> 빌러브드는 유령이야기가 어떠해야 한다던가하는 기대나 여자마귀, 변신술사, 악마 같은 것에 관해 우리가 가진 개념들을 뒤집거나 바꾸어 놓는다. .
>
> *Beloved*(1987) reverses/undermines our expectations of what ghost stories should be, as well as any conceptions we may have about succubi, shapeshifters, and demons. (Harris 13)

이러한 유령이야기들은 모리슨의 소설 속에서 재구성되고 흥미를 끌기위한 유령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객관적 비판을 담은 역사적 서사로 변한다. 모리슨은 민담의 역사적인 파급력을 『빌러브드』에서 재구성함으로서 독특한 현재와 과거를 창조하고 있다. 그녀의 대부분의 소설, 특히 『빌러브드』는 현재에 대한 과거의 파급력을 공동체 속의 인간을 대상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옳은 것이 무엇이고 틀린 것은 무엇인가 하는 윤리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모리슨 소설에 나타나는 기억과 과거의 사실은 그래서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담론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생동감있게 움직이는 인간의 역사이며, 이것이 그녀의 소설을 새로운 역사소설로 분류케 하고, 나아가 그녀의 소설 속에 나타난 반역사적 성격을 심화한다.

또 하나의 반역사적 속성은 그녀의 소설에 나타난 재개정의 하나의 방법

론이다. 모리슨의 소설에 나타난 기억은 항상 파편과 같은 것이다. 세스의 말은 조각난 파편과 같아서 그녀의 이야기는 항상 주위를 겉돈다.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기억 속에서 살고 있는 세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해석이라는 일련의 비평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소설은 그 파편 속에서 작가 자신과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를 발견하기 위한 해석학적 공간" (Tate 125)을 창출한다. 모리슨이 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해석학적 참여이다. 이 소설이 개인의 역사에서 공동체의 역사로 진화해 가듯이, 독자도 항상 이 소설이 모리슨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의 서술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해석에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인식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역사에 대한 재개정이란 이렇듯 매우 복잡한 해석학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재개정의 작업이 백인중심의 역사에 대한 해체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재개정을 통하여 모리슨이 획득하는 것은 하나의 반서사이며, 지배계급의 역사를 교정한 다시 쓴 역사이다. 역사라는 것은 항상 통시적인 것도 오늘의 일, 사건, 사상과 동떨어진 역사적 사실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재개정 작업은 작가 한 사람이 어떤 역사적 사실 속에 숨은 지배담론을 해체하거나 수정하는 작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해석의 공간을 줌으로서 성취되는 공동의 교정의 작업이다. 『빌러브드』 안에서 흑인의 숨겨진 역사는 등장인물에 의해 기억되고, 밝혀지고, 수정된 후, 잊혀지는 순환적 과정을 반복하지만, 이 소설을 읽는 독자는 자연스럽게 그 자신의 의식 속에서 역사의 숨겨진 부분을 발견하고 교정해나간다. 이러한 재기억, 재개정을 통한 반역사적 글쓰기의 과정은 왜곡되고 삭제된 흑인의 역사를 다시 발견하고, 그 속에 숨은 진실을 발견한다. 이를 통해, 모리슨은 백인이 삭제해온 흑인의 역사를 발견함으로써 백인의 지배담론에 맞서는 대항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결 론

본 논문은 토니 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과 『빌러브드』를 반서사(counter-narrative)과 반역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가장 푸른 눈』에서는, '정체성 추구' 와 더불어, 백인의 미의식으로 대변되는 지배사상에 반하는 반서사적 특성을 규명하고, 『빌러브드』에서는 모리슨의 역사의식과 재기억, 재교정을 통한 반역사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을 검토하였다.

『가장 푸른 눈』은 흑인이면서도 백인이 되고자 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 이다. 푸른 눈을 선망하여 찻잔에 그려진 셜리 템플의 눈을 가지고 싶은 한 소녀는 그녀를 둘러싼 흑인에 대한 차별, 가정의 파탄, 같은 인종간의 계급의식등 여러 가지 모순에 의해 파멸과 광기의 길을 걷게 된다. 그녀의 파멸은 흑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버리고 맹목적으로 백인을 닮아가고자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백인의 아름다움과 조금 가깝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족을 부정하는 흑백 혼혈아(mulatto), 백인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미의식의 덫에 자신을 내던지는 페콜라, 자신의 가부장제적 권위를 위해 딸을 성의 노예로 삼는 촐리등 많은 인물들이 왜곡된 미의식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페콜라가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그녀가 너무도 흑인적이기 때문이다. 너무도 흑인적인 외모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치욕이다. 그러나, 모리슨은 가잔하고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흑인임을 잊지 않는 클로디아와 그녀의 부모를 통해 왜곡된 미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흑인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희망적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한다.

모리슨은 '어떤 것이 아름답다'라는 공식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베이커먼(James Bakerman)과의 인터뷰에서 모리슨은 그녀의 작품들을 통해, "진실한 아름다움과 그것이 부재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59)

라고 말하고 있다. 모리슨에게 "진실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이다. 그렇다면 모리슨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즉 흑인자신에 대한 사랑과 흑인사회의 건강성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모리슨은 백인의 왜곡된 미의식에 대한 반서사를 형성하기 위하여, 딕과 제인이야기의 안정된 백인가정의 상을 초현실적 필체로 해체한다. 더 나아가, 왜곡된 미의식이 조장하는 흑인과 흑백혼혈아간의 계급적 차별과 가부장 제도에 의해 고통받는 흑인 여성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 그려나가고 있다. 이 소설은 "백인의 미적 기준이 가진 가치파괴적 힘" (Stern 78)을 소설 속에 형상화하여, "잘못된 미적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시각적인 상쇄지점을 제공" (Stern 79)하고, 이를 다관점/다성성전략, 호-응 기법, 딕과 제인 이야기의 해체를 통해 지배담론에 대한 반서사를 형성하고 있다.

『빌러브드』는 다시 쓰는 노예서사(slave narrative)로, 마가렛 가너 이야기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삼는다. 이 소설은 노예 사냥꾼을 피해 도주하던 중, 자신의 딸이 노예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끼로 자신의 아이를 죽였던 한 흑인 노예의 이야기이다. 주인공 세스는 이런 아픈 과거를 한탄하며, 자신을 다른 이들로부터 격리시킨 채 살아간다. 그러나 숨겨진 과거의 진실이 폴 디와 빌러브드의 현신을 통해 밝혀지고, 왜곡되고 숨겨져 왔던 역사는 소설 속에 살아난다. 모리슨은 세스, 덴버, 빌러브드라는 등장인물을 축으로 숨겨진 역사를 발견하고 새롭게 쓴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에 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역사도 현대사가 아닌 것은 없다. 역사를 통해 인간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잣대를 규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왜곡되고, 때로는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은 그 자체만으로 저항적인 것이며, 반드시 저항의 대상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모리슨은 역사의 이러한 현대적 속성

을 이미 인지하고 역사를 만질 수 있는 구상적인(substantial) 것으로 텍스트화 함으로써 왜곡된 역사를 다시 교정하고 있다. 왜곡된 역사에 대한 교정 작업은 그 자체로 이미 반역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점들을 재기억: 재교정: 반역사(remomery: revision: counter-history)라는 방법을 통해 설명하려고 하였다. 말할 수 없었던 생각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재기억의 기법으로부터 역사에 대한 재개정을 성취하며, 이를 통해 백인에 의해 왜곡되거나 삭제되어온 역사에 반대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빌러브드』가 가지고 있는 대항담론적 성격이다.

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과 『빌러브드』는 각기 반서사와 반역사적 글쓰기를 통해 지배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을 형성한다. 모리슨은 『가장 푸른 눈』을 통해 백인의 지배적 미의식에 반서사를 행하고 『빌러브드』를 통해, 흑인의 숨겨진 역사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재개정함으로써 지배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을 형성한다. 담론의 존재방식이 타 담론에 대한 배타성과 반대, 대립을 통해 형성되는 것처럼, 모리슨의 소설도 담론의 존재방식처럼 백인의 왜곡된 미의식과 의도적으로 배제된 역사에 대해 배타성과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과 『빌러브드』는 오늘의 흑인에게 지배담론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을 암시하는 하나의 대항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대항담론이 지배담론의 예속성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언어 체계라고 할 때, 모리슨의 소설은 창작이란 심미적인 범주를 벗어나 흑인의 현실을 통해 흑인 정체성의 의미를 재규명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흑인의 정체성의 문제에 대하여 텍스트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행위자체는 일종의 실천적 글쓰기이다. 그런 점에서 저항적인 색채를 보여주는 모리슨의 작품은 대항담론의 범주에서 해석될 때,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Primary Sources

Morrison, Toni. *The Bluest Eye.* New York: A Plume Book, 1994.

_____, *Beloved.* New York: A Plume Book, 1988.

_____, "The Opening Sentences of *Beloved*", *Michigan Quarterly Review* 28 no 1 (Winter 1989): 1-34.

_____, *Playing in the Dark: Whiteness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New York: Vintage Book, 1992.

_____, "Nobel Lecture 1993." *World Literature Today* 68 (1994): 1-8.

_____, "Memory, Creation and Writing." *Thought* 59 (1984): 385-390.

2. Secondary Sources

Achebe, Chinua. "The African Writer and the English Language."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Eds. Patrick Williams and Laura Chrism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Awkward, Michael. *Inspiring Influences: Tradition, Revision and Afro-American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P, 1989.

Bakerman, Jane S. "Failures of Love: Female Initiation in the Novels of Toni Morrison." *American Literature* 52 (1981): 541-563.

Bhabha, Homi K. "Articulating the Archaic." *Literary Theory Today.*

Eds. Perter Collier and Helga Geyer-Ryan.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203-218.

_____ "Of Mimicry and Man: the ambivalence of colonial discourse." *October* 28 (Spring 1984): 125-133.

Bowers, Susan. "*Beloved* and the New Apocalypse." *The Journal of Ethnic Studies* (1990): 59-77.

Clemons, Walter. "The Gravestone of Memories."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s Beloved.* Ed. Barbara H. Solomon. New York: G. K. Hall & Co., 1998. 43-45.

Conner, Mark C. *The Aesthetics of Toni Morrison: Speaking The Unspeakable.* Mississippi: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00. 1-30.

Corey, Susan. "Toward the Limits of Mystery: The Grotesque in Toni Morrison's *Beloved." The Aesthetics of Toni Morrison: Speaking The Unspeakable.* Mississippi: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00. 31-48.

Davis, Christina. "An Interview with Toni Morrison", *Conversation*, Ed. Danille Taylor Gurtherie, Jackson: Mississippi University Press, 1994. 223-234.

Darling M. J. "Ties That Bind." *The Women's Review of Books.* (March 1988): 4-5.

DuBois, W. E. B. *The Soul of Black Folk: Essays and Sketches.* New York: Kraus, 1973.

Elliot J. S. Mary. "Postcolonial Experience in a Domestic Context: Commodified Subjectivity in Toni Morrison's *Beloved."* *MELUS* vol. 25 no 3/4 (2001): 181-202.

Grewal, Gurleen. *Circles of Sorrow, Lines of Struggle: The Novels of Toni Morrison.* Louisiana: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8.

Guth, Deborah. "A Blessing and Burden: The Relation to the Past in *Sula, Song of Solomon, and Beloved.*" *MFS* vol 28. 39 no. 3/4 (Fall/Winter 1993): 575-596.

Guthrie T. Danille.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Jackson: University of Mississippi, 1994.

Fauchault, Michel. *Power/Knowledge.* trans. by Colin Gordon. New York: Pantheon Book. 1980.

_____, *Mental Illness and Psychology*,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Harper and Row, 1976.

Heinze, Denise. *The Dillemma of Double-Consciousness: Toni Morrison's Novels*, Athens: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3.

Karr, E. H. *What is History?.* New York: Vintage Books, 1961.

Lindinsky, April. "Prophesying Bodies: Calling for a politics of collectivity in Toni Morrison's *Beloved.*" *The Discourse of Slavery.* Ed. Carl Plasa. New York: Routledge, 1994. 191-213.

Loomba, Ania. *Colonialism/Post-colonialism.* New York: Routledge, 1998.

Mckee, Patricia. *Producing American Rac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1.

Matus, Jill. *Toni Morrison.* Menchester: Me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Mbalia, D. Doreatha. *Toni Morrison's Developing Class Consciousness,*

Selinsgrove: Susquehanna University Press, 1991.

Middleton, L. David. *Toni Morrison's Fiction and Contemporary Criticism.*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97.

Mori, Aoi. *Toni Morrison and Womanist Discourse.*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1999.

Mobley Marlyn S. "A Different Remembering: Memory, History and Meaning in *Beloved.*" in *Toni Morrison: Ciritical Perspectives Past and Present.* Ed. Henry Louis Gates Jr. New York: Amistad, 1993. 356-65.

Mullen, V. Bill. "Breaking The Signifying Chain: A New Blueprint For African-American Literary Studies." *MFS* 47 no. 1 (Spring 2001): 145-163.

Peach, Linden. *Toni Morrison.* New York: Macmillan, 1995.

Rigney, H. Barbara. "Breaking the Back of Words: Language, Silenc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n *Beloved.*" *The Voices of Toni Morrison.*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99): 201-240.

Rushdy, H. A. Ashraf. "Daughter Signifying History: The Example of Toni Morrison's *Beloved.*" *American Literature* 64 no 3 (September 1992): 567-597.

Said, W. Edwar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78.

Stern Katherine. "Toni Morrison's Beauty Formula." *The Aesthetics of Toni Morrison: Speaking the Unspeakable,* Ed. Marc C. Conner.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00.

Spivak, C. Gayatri. *In Other Worl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1987.

Snitow, Ann. "Death Duties: Toni Morrison Looks Back in Sorrow."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s Beloved.* New York: G. K. Hall & Co., 1998. 47-52.

Tate, Claudia. *Black Women at Work.* New York: Continum, 1983.

Terdiman, Richard. *Discourse/Counter-Discourse: The Theory and Practice of Symbolic Resistance in Nineteenth-Century Fr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Tiffin, Helen. "Post-Colonial Literatures and Counter-Discourse." *Kunapipi* 9.3 (1987): 17-34. Excerpted in *The Post Colonial Studies Reader.* Eds.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New York: Routledge, 1995. 95-8.

Tyson, Lois. *Critical Theory Today.*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98.

West, Cornel. *Race Matters.* Boston: Boston publishing, 1993

Young, Robert. *White Mythology.* New York: Routledge, 1990.

김 애주. 『토니 모리슨 연구』. 한국문화사 1999.

박 엽. 「토니 모리슨 소설에 나타난 역사의식」. 『영어영문학』. 제 43권 2호 1997. 343-363.

이 승은. 『토니 모리슨』. 평민사, 1999.

토니 모리슨. 『가장 푸른 눈』. 이 상형 역. 백양출판사, 1993.

토니 모리슨. 『빌러브드』. 설영환 역. 세종출판공사, 1988.